

# 조선시대 제주도 존자암지의 위치와 이전에 대한 문헌적 고찰\*

송문기\*\*

<차례>

- I. 머리말
- II. 문헌에 나타난 尊者庵址의 위치 비정
  - 1. 읍지류
  - 2. 문집류
- III. 존자암의 移建 事由
  - 1. 세종대 음사의 제한과 산천단묘의 정비
  - 2. 17세기 중·후반 제주지역의 재난과 민간의 대응
- III. 맺음말

## 국문요약

이 글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존재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라산의 존자암이 조선시대 어떤 이유에 의해 어느 곳으로 이전되었는지 문헌을 통해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존자암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각종 문집과 읍지류 등을 활용하였으며, 『실록』 등의 기사를 통해 논지를 보완하였다. 문헌의 고찰을 통해 조선시대 존자암이 영실과 불례오름, 그리고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조선 전기 음사의 제한과 산천단묘의 정비과정과 조선 후기 제주지

\* 이 글은 2011년 10월 13일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최한 제65회 추계학술발표회 『제주의 역사와 최신 연구성과』에서 발표한 것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임.

이 글에서 인용한 『중보탐라지』(일본 천리대 소장본)의 사묘조와 불우조는 강창룡 선생님의 배려로 볼 수 있었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역의 재난 극복과정에서 존자암이 이긴된 것으로 보았다.

주제어 : 영실, 영곡, 불레오름, 무수천, 존자암, 단유제도, 산천단묘, 한라산신묘, 淫祀, 광양신,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 한라산, 탐라성주.

## 1. 머리말

고려시대 이전부터 존재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존자암은 조선시대 기행문이나 시 그리고 기문 등의 글에서 그 존재양상을 추측할 수 있다. 한라산의 존자암은 다른 국내 명산에 있었던 神廟나 佛宇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불교신앙처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성격을 가졌을 존자암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가 문헌의 고증과, 창건년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선시대 존자암의 성격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존자암의 위치를 비정하는데 혼란을 주었을 뿐만아니라, 조선시대 제주도 불교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의 존자암에 대한 연구는 문헌적 분야와 고고학적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문헌적 분야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 등을 인용하여 불레오름의 존자암을, 대정 지경으로 옮긴 존자암으로 본 연구가 있다(김봉옥, 1991). 최근에는 존자암에 대한 문헌기록을 통해 활동시기, 역할, 위치 등을 고찰한 연구가 있어 존자암의 위치와 성격을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시대순의 사료 나열에 그쳐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한금순, 2011).

고고학적 분야에서는 불레오름 존자암의 존재시기와 창건시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존재시기에 대해서는 遺構의 양상과

유물의 성격을 토대로 고려 12세기경에 創建되어 16~17세기경에 절정기를 이루었다는 연구가 있는데(강창언, 1992), 제주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 결과 14세기~17세기까지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었다.<sup>1)</sup> 창건시기에 대해서는 불레오름 존자암에서 출토된 명문기와를 통해 축조시기(제1차 가람)를 추정된 선행적 연구가 있다. 즉 탐지로 추정되는 유구에서 출토된 “[?]二月修正禪師大夫金冲光”명문 기와에 보이는 金冲光을 같은 곳에서 출토된 “万戶兼牧使奉[?]”가 새겨진 기와와 같은 것으로 보고, 이 기와에 새겨진 이름을 가진 인물을 고려 말 목사겸 만호를 지냈던 金仲光으로 간주하여, 그 축조시기를 1383년~1384년 사이로 추정한 것이다(제주대학교박물관, 1996: 186쪽). 같은 맥락에서 水精寺址 출토 “万戶兼牧使奉翊大夫金冲光 [?]二月修正禪師達倫”명문기와(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134-135쪽)를 통해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었는데 불레오름의 존자암이 1383년 이후 즉 14세기 후반에 創建되었다는 것이다(현문필, 2011).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한라산 서쪽 고개에 있었던 존자암에 대한 조사가 최근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제주고고학연구소,

1) 발굴결과 遺構로는 1차 시기(13~15세기: 建物址(1)·(4)·(5), 碑閣址동편, 石列(?), 浮屠址)와 2차 시기(16~17세기: 建物址(2)·(3), 碑閣址, 浮屠址)의 것이 확인되었다. 遺物로는 瓦類와 陶磁器類 등이 출토되었다. 기와류는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어골문계통의 有文平瓦와 조선 중기의 것으로 여겨지는 경질의 無文平瓦로 나누어 진다. 또한 銘文瓦는 모두 조선 초기의 것으로 ‘万戶夫承石’, ‘無閑修正呂介’, ‘冲(冲)光’, ‘万戶兼牧使’, ‘千戶’, ‘主高’, ‘天母(丑)開啓’ 등이다. 도자기는 주로 백자편과 분청사기편이며, 청자편은 소수 출토되었다. 출토된 백자편 중에는 ‘毛老園’, ‘大靜’, ‘禾順’ 銘 등이 새겨져 있다(제주대학교 박물관·제주도, 『尊者庵址』-發掘調査中間報告-, 1993. 115-120쪽). ; 1차시기(14~15세기) 제1단 石築施設, N-S Tr. (1)-(3) 내부 積石施設, 塔址推定址, 건물지(3)·(4)·(5), 浮屠址이고, 2차 시기(16~17세기)는 건물지(1)·(2), 碑閣址(祭壇址)이다(제주대학교 박물관·제주도(1996), 『尊者庵址』, 157쪽).

2011·2012), 기존의 연구가 불레오름의 존자암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영실 존자암의 성격을 미약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레오름 존자암의 존재양상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존자암에 대한 각종 문헌기록을 재검토하여 존자암이 애초 창건된 곳에서 최소한 2곳 이상 자리를 옮겨 건립되었음을 밝히고, 옮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조선시대 존자암이 가졌던 성격을 한라산신과 탐라성주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17세기 후반 재난기에 존자암의 역할도 추론해 보고자 한다.

## II. 문헌에 나타난 尊者庵址의 위치 비정

### 1. 읍지류

존자암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처음 보이는데, 이원진의 『耽羅志』(1653)에는 대정지경으로 옮겨 간 존자암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어 비교가 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존자암이 ‘한라산 서쪽 고개[西嶺]<sup>2)</sup>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 『탐라지』에는 ‘옛날에 한라산瀛室에 있었다’<sup>3)</sup>라고 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한라산 서쪽 고개가 곧 영실임을 알 수 있다. 영실은 1793년 경 간행된 『濟州大靜旌義邑誌』에 아래와 같이 靈室洞으로 되어 있다.

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濟州牧 佛宇(條) 尊者庵, “在漢拏山西嶺 其洞有石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3) 『耽羅志』 濟州(牧) 佛宇 尊者庵, “舊在漢拏山瀛室 其洞有石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今移西麓外十里許 卽大靜境也.”

영실동 한라산 서남쪽 산허리에 있다. 천 길 푸른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오백 개의 괴석이 있는데 羅漢처럼 생겼다.<sup>4)</sup>

위 기록에 따르면 영실은 곧 한라산 서남쪽 산허리에 천 길의 푸른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나한처럼 생긴 괴석이 오백 개 있는 골짜기인 것이다. 1841년 간행된 『耽羅誌草本』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는데 『제주대정정의읍지』의 靈室洞을 靈室로 바꾼 정도이다.<sup>5)</sup>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에 기록된 영실의 존자암은, 현재의 오백장군과 병풍바위가 있는 곳에 위치하였을 것이다.<sup>6)</sup>

영실에 있던 존자암은 17세기 중반쯤에 대정현에 속한 地境으로 옮기게 된다. 즉 한라산 서쪽 산기슭[山麓]에서 바깥으로 10리쯤 되는 곳인데, 대정현에서는 동쪽으로 60리 되는 곳이다. 절 동쪽에는 샘이 있었다.<sup>7)</sup> 현재로서는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당시 대정현의 동쪽은 정의현 境界까지 57리였는데 孤根山이 두 현의 경계에 있었다.<sup>8)</sup> 따라서 대정현 지경으로 옮긴 존자암은 고근산 북쪽의 한라산 서쪽 산기슭 밖 10리쯤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9)</sup>

4) 『濟州大靜旌義邑誌』 形勝, 靈室洞, “在漢拏西南山腰 千尋蒼壁 環如屏障 五百怪石狀如羅漢.”

5) 『耽羅誌草本』 권2, 形勝 靈室, “在漢拏山西南山腰 削壁千仞 怪石列立 號五百將軍 或稱石羅漢.”

6) 당시 존자암은 약밭[藥圃]에 포함되어 있었다. 약밭은 新果園 북쪽에 있었고 이곳의 토질에 맞지 않은 것은 다른 곳에 나누어 심었다. 존자암에는 上衙, 二衙, 鄉校, 小林, 新果園와 마찬가지로 側栢을 심었다(『耽羅志』 濟州(牧) 醫藥 藥圃, “在新果園北……不宜土者 分種他處也……側栢種 上二衙 鄉校 新果園 小林 尊者庵”).

7) 『耽羅志』 大靜縣 佛宇 尊者庵, “在漢拏山西 距縣東六十里 寺東有泉 湧出流至百步許 伏流地中.”

8) 『耽羅志』 大靜縣, “東至旌義縣 五十七里.”

『耽羅志』 大靜縣 山川 孤根山, “在縣東五十七里 旌義界.”

9) 1780~1789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濟州邑誌』 소제 『大靜縣誌』에 따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대정현 지경으로 옮긴 존자암을 현재 불레오름에 있는 존자암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봉옥은 대정현 지경으로 옮긴 존자암을 현재 불레오름에 있는 존자암으로 보았지만(김봉옥, 1991), 발굴조사한 건물지로 볼 때 불레오름의 존자암은 14~17세기에 존재하고 있었다(제주대학교박물관, 1996: 157쪽). 따라서 대정현 지경으로 옮긴 존자암과 현재 불레오름의 존자암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영실의 존자암은 불레오름으로 이견되었다가, 다시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增補耽羅誌』<sup>10)</sup>의 기록이다.

옛날에 한라산 瀟室에 있었다. 그 골짜기에 마치 승려가 도를 닦는 모습을 한 돌이 있어, 민간에서는 修行洞이라고 전해온다. 지금은 서쪽 기슭 바깥 10리 쯤 되는 곳으로 옮겼는데 곧 대정현에 속한 지경이다. 【보】 불상 1구와 함께 섬돌과 기와조각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 옆에 石罅이 있는데 뚜껑을 흔들고 움직여 열어보고자 해도 열리지 않는다.<sup>11)</sup>

---

르면 대정현 관문에서 동쪽으로 큰 도로를 따라 57리를 가면 정의현 경계에 이르는데 그 경계에 竝站이 있었다(『大靜縣誌』 道路, “自官門東至旌義界 大路由 螺藪 尊者坪 天池潭 羔屯至竝站 五十七里”).

- 10) 본 글에서 인용한 『증보탐라지』는 일본 천리대소장본으로 간행년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입수한 祠廟條를 보면, 社稷壇조에 ‘今上 甲寅 牧使 鄭道元이 남문 밖으로 還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간행년대를 추측할 수 있다. 정도원 목사는 1733~1734년에 부임했기 때문에 今上은 영조를 말하며 갑인년은 1734년(영조 10)이다. 또 三姓祠조에, ‘목사 安慶運이 守齋儒生 30인을 定給함하여 輪直케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안경운 목사는 1740~1743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한 인물이다. 따라서 사료조 기록으로만 보았을 때 『증보탐라지』는 영조 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 11) 『增補耽羅誌』, 濟州(牧), 佛宇 尊者庵, “旧在漢拏山瀟室 其洞有石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今移西麓外十里許 即大靜境也 【補】 佛像一軀與階石瓦礫至今留在 其傍有石罅 其蓋攪動而欲開不能.”

위의 내용을 보면 앞부분은 『탐라지』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지만, ‘補’라고 한 부분은 당시의 상황을 보충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주목된다. 특히 石瓮은 현재 불레오름 존자암에 있는 浮屠로 여겨지는데 지표조사 당시 부도의 塔身部는 下臺石과 中臺石이 노출되어 있는 浮屠址에서 이탈되어 있었다(제주대학교박물관, 1996: 51쪽). 따라서 『증보탐라지』에 기록된 石瓮이 영실의 존자암과 대정현 지경의 존자암에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영실의 존자암이 불레오름을 거쳐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 갔을 것이라는 추정도 성립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 기록으로 볼 때, 존자암이 영실에서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 간 시기는 1530년~1653년경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영실에서 불레오름으로의 이권은 언제 이루어진 것일까?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발굴조사 결과가 시간적으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읍지의 기록만으로 언급하기엔 한계가 있다. 즉 발굴조사 결과 불레오름 존자암은 14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간행되던 1530년까지 존자암은 영실에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불레오름에서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 간 시기는 이원진의 『탐라지』 기록과 발굴조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17세기 중반에 이 건된 것으로 보인다.

존자암의 移建에 대한 『탐라지』의 기록은 후대 邑誌類에 대체로 수용된다. <표 1>을 보면 『濟州郡邑誌』는 제주목 불우조에 관한 기록을, 張寅植의 『耽羅誌』에는 제주목 불우조의 것을 반영하면서 이형상 목사에 의해 철폐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표 1〉 읍지류의 존자암 기록

번호	서명	저자	간행 년대	내용
1	新增東國輿地勝覽	李荇 등 편찬	1481, 1530	在漢拏山西嶺 其洞有石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2	耽羅志 <sup>12)</sup>	李元鎮	1653	濟州牧：舊在漢拏山瀛室 其洞有石 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今移西麓外 十里許 卽大靜境也 大靜縣：在漢拏山西 距縣東六十里 寺東有泉 湧出流至百步許 伏流地中
3	增補耽羅誌	未詳	영조 년간	濟州牧：旧在漢拏山瀛室 其洞有石 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今移西麓外 十里許 卽大靜境也
4	濟州邑誌 <sup>13)</sup>	未詳	1780~ 1789	濟州牧·大靜縣·旌義縣：寺刹 昔在 今無
5	濟州大靜旌義邑誌 <sup>14)</sup>	未詳	1793경	寺刹 無
6	耽羅誌草本 <sup>15)</sup>	李源祚	1841~ 1843	在漢拏山靈室 洞口有石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 今皆廢而係是島中古蹟 故附見於此
7	耽羅誌 <sup>16)</sup>	張寅植	1840 이후	【濟州牧】旧在漢拏山瀛室 其洞有石 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今移西麓外 十里許 卽大靜境地 ※ 李衡祥時並爲撤罷而係是島中古蹟 故依旧錄之
8	濟州郡邑誌 <sup>17)</sup>	未詳	1899	舊在漢拏山瀛室 其洞有石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今移西麓外十里許 卽大 靜境也 ※ 『大靜郡誌』寺刹 無, 『旌義邑誌』 寺刹 無

12) 韓國學文獻研究所 編(1983), 『邑誌』六 濟州道, 아세아문화사.

13) 韓國學文獻研究所 編(1983), 위의 책.

14) 韓國學文獻研究所 編(1983), 위의 책.

15) 『耽羅誌草本 外』(영인본, 198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6) 『耽羅誌』(일본 동경대학 소장 영인본, 198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군읍지』의 경우 이전의 제주읍지류와 달리 유일하게 존자암만을 불우조에 포함시켰는데 「時邑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원진의 『탐라지』를 축약했기 때문이다. 또 李源祚의 『耽羅誌草本』과 장인식의 『탐라지』는 존자암을 古蹟으로 분류하고 있어 19세기 후반 경에는 古蹟으로 인식된 듯하다.

읍지류의 기록만으로 볼 때 대정현 지경으로 옮긴 존자암은 적어도 1789년(정조 13) 이전에 廢寺된 듯하다.

## 2. 문집류

문집류에 나타나는 존자암은 한라산 유람(기행)이나 한라산신제를 지내러 가는 여정을 기록한 글에서 주로 나타난다. 아울러 한라산 정상에서 노인성을 보고자하는 소망을 詩 속에 드러내곤 했다.

기행문의 경우 靈室을 자세히 묘사한 반면, 산신제를 지내러 가는 글 속에는 無愁川에서 한라산 정상까지의 경로와 풍경이 잘 나타나 있다. 즉 기행문을 통해서는 靈室(瀛室)에 존재했던 존자암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고, 산신제 여정의 글을 통해서는 불레오름에 있던 존자암의 위치와 규모를 알 수 있다.

### 1) 영실 존자암

여기에서는 먼저 靈室(瀛室)과 靈谷(瀛谷)이 어느 곳을 지칭하는 지 「南溟小乘」·『南槎錄』·『遊漢拏山記』·『南槎日錄』·『南遷錄』·『知瀛錄』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존자암이 있었던 위치들을 비정

17) 韓國學文獻研究所 編(1983), 앞의 책.

해 보고자 한다.

<표 2> 한라산 등반 여정

번호	서명/記	저자	연대	내용	구분
1	南溟小乘	林 悌	1577 ~1578	(濟州城) 西門→都近川 上流→尊者菴→五百將軍洞(靈谷)→半嶺→頂上→上峰 (1578. 2. 10~15)	기행
2	南槎錄	金尙憲	1601 ~1602	(濟州城) 南門→乾川(屏文川)→大川→[上流無愁川]→尊者庵→路上 望 千佛峯(修行洞·靈谷)→修行窟→七星臺·坐禪巖→中峯→絶頂下→絶頂(山神祭) (1601. 9. 24~25)	산신제
3	遊漢拏山記	金 紱	1609 ~1610	鐵川(無愁川)→노루오름[獐嶽]→三長洞(三長嶽)→불레오름[浦涯嶽]→尊者庵(精舍)→瀛室(古尊者庵基)→窟(修行)→七星臺→仰見石壁(上峰) 4. 8	기행
4	南槎日錄	李 增	1679 ~1680	(濟州城) 南門→演武亭→屏門川·大川·無愁川→龍生窟→尊者庵→望 千佛峯→七星臺·坐禪岩→頂上(山神祭)→瀛室(五百將軍洞)⇒尊者庵⇒無愁川→龍寐果園⇒濟州城 (1680. 3. 19~20)	산신제
5	南遷錄	金聲久	1679 ~1682	無愁川→尊者庵→瀛室洞·五百將軍洞·千佛峯→外求音佛→頂上(山神祭)⇒旌義縣 (1680. 3. 19~20)	산신제
6	知瀛錄	李益泰	1694 ~1696	漢拏山→西下山腰 過七星岩·修行窟→尊者庵 (1694. 8. 16)	기행

※ 연대 : 부임 또는체류기간 ※ ⇒ : 제주성(목)으로 돌아가는 여정

위의 <표 2>는 제주성(목)에서 한라산 정상까지 오르는 여정을 나타낸 것이다. 제주목에서 출발하면 모두 성문을 나와 무수천을 거쳐 산에 오르고 있어 이 경로가 제주목에서 한라산을 오르는 하나의 코스로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산신제를 지내러 가는 경로를 金尙憲과 李

增, 그리고 金聲久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상헌은 제주성 남문에서 출발하여 무수천에 도착한 다음, 이 개울을 따라 오솔길로 존자암에 도착한다.<sup>18)</sup>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하여 길가에서 천불봉을 바라보며 수행굴과 칠성대·좌선암을 거쳐 한라산 정상에 오르고 있다.<sup>19)</sup> 이러한 경로는 이후 이증<sup>20)</sup>과 김성구<sup>21)</sup>의 여정과 같아, 산신제를 지내러 가는 길로 정착된 듯하다. 이증과 김성구의 여정이 동일한 것은 1679년(숙종 5) 제주안핵겸순무어사로 임명되

18) 『南槎錄』卷2, 9月 24日 戊午條, “晴 宿漢拏山絕頂下 曉起尋食出南門 到五里過一乾川【名 屏文川】又渡一溪【名 大川】……二十里許 又渡一水【三川皆源出漢拏山西谷】洞壑幾十餘里 草徑沿溪 溪之左右 老木架壑 處處霜葉可玩 溪之兩岸 高或十丈 或五六丈 絕壁屏立……到山麓中火 自州距此 四十餘里 其間道上 原野了無高木 惟荒茅蕪塞 細竹蒙密 亦無人居 自入山口 雲木四合 未分陰晴 細竹蒙密不見寸土……或五里十里之間 馬蹄登登 有從窟上行【島內郊墟道路 多如此處】石路如線 僅通人馬 到尊者庵少憩 自山麓距此 又四十里。”

19) 『南槎錄』卷2, 9月 24日 戊午條, “茶罷遂向絕頂 過此以後 更無雜卉惟松木赤木檀木 交陰簇翠……路上望千佛峯……又過修行窟 窟中可容二十餘人 古有高僧休糧 入棲之處也 過七星臺 坐禪巖【道邊高巖列峙 狀如北斗 又有一石 恰如坐僧故云】……日沒時始到絕頂下 依巖長幕而宿。”

20) 『南槎日錄』3月 19日 戊申條, “晴 宿漢拏山絕頂 白鹿潭邊依幕……出南門到演武亭改服……過屏門川 大川 無愁川 朝飯於龍生窟 距州二十五里也 三川源出湧拏西谷 無愁川窟大洞壑 幽邃左右老木架壑 杜鵑花正開如錦張 兩岸絕壁屏立 陡斷處如虹門……皆灰色 沿溪十餘里入山谷 雲木四合 細竹遍山蒙密長不滿尺 石路巖崕馬蹄登登 如從窟上行 行三十里到尊者庵中火……過此更無雜木 唯松檜赤木蔓香交陰并翠 路上望千佛峯 一面石劍簇立……又過七星臺 坐禪岩 中峰以上松木亦無……沒時艱到絕頂下 依幕白鹿潭 堅冰尙未解。”

21) 『八吾軒集』卷6「南遷錄」下, (三月)19日, “曉發行 行御使判官諸執事同之 朝炊于無愁川 川在西南十八里 朝貢川之上流 兩岸石壁奇險多勝處 沿溪躑躅 盛開爛熳 燬可玩 從山麓一條細路逶迤而上 別無險絕處 而馬蹄登登有聲 如從窟上行……午到尊者庵 距無愁川三十里 庵頽廢已久 只有遺址 此則大靜所屬也……過此以後 更無雜卉 惟松木赤木檀木交陰積翠 行六七里 過瀛室洞 五百將軍洞 千佛峯 蓋諸峯怪石峭拔 如衆佛拱手 以形得名者也 到外求音佛小憩 距尊者庵四十里 此則本縣所屬也 自此捨馬乘藍輿以上到絕頂下 則藍輿亦不便携筇步上 或坐或行 日暮始到頂上 距外求音佛十五里。”

어 온 이증과, 같은 해 정의현감에 좌천된 김성구가 이듬해인 1680년(숙종 6) 3월 한라산에 致祭하는 獻官으로 같이 갔기 때문이다.<sup>22)</sup>

그러나 불레오름 존자암에 대한 기록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사록』은 여정 과정에서가 아닌 별도의 「존자암」항에서,<sup>23)</sup> 『남사일록』은 산신제를 지내고 돌아오는 여정에서, 『남천록』은 존자암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기술하고 있다.<sup>24)</sup>

한라산에서 내려오며 영실을 묘사한 『남사일록』을 기준으로 보면,<sup>25)</sup> 이들은(김상헌·이증·김성구) 金緻처럼 곧장 영실을 거쳐 정상으로



〈그림 1〉 한라산 등반 여정 추정도

- 22) 『南槎日錄』 3月 19日 戊申條, “祭官 判官姜聖佐 旌義縣監金聖久 大靜縣監李簪 教授鄭維高 前縣監文榮後, 前察訪金繼隆 前典籍金繼燾 訓長高溥宗 陪香祝出南門到演武亭改服.” 『八吾軒集』 卷6 「南遷錄」 下, “三月初一日 見 差漢拏山致祭 獻官關文……初三日 發向濟州 蓋漢拏山致祭在於初六日也.”
- 23) 『南槎錄』 卷2, 9月 25日 己未條, “尊者庵 庵舍九間 蓋與壁皆以板代瓦土 問之僧輩 山中土脈粘液 且多沙石 不宜塗墍 瓦則必質於陸地 故力所難致也 中間屢經興廢 癸巳年間 有康津居僧 代父入防 防罷仍化財重修云.”
- 24) 『八吾軒集』 卷6 「南遷錄」 下, (三月) 19日, “……午到尊者庵 距無愁川三十里 庵頽廢已久 只有遺址 此則大靜所屬也.”
- 25) 『南槎日錄』 3月 20日 己酉條, “晴 宿濟州客舍 曉起行事 祭罷猶早平明……歸路入瀛室 所謂五百將軍洞者也……上洞爲瀛室……到尊者庵朝飯 此庵舊在瀛室 其洞有石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今移西麓外十里許大靜境 只有遺墟.”

올라간 것<sup>26)</sup>이 아니라, 천불봉을 바라볼 수 있는 영실 아래에서 수행굴과 칠성대·좌선암을 거쳐 정상으로 올라간 것이다. 그러므로 김상헌과 김성구의 기록에는 영실의 존자암에 대한 묘사가 없다.

기행문의 경우 현 존자암 보다는 靈谷·靈室(瀛室)에 대한 묘사가 더 비중있게 기록되어 있다. 임제는 수행굴과 칠성대·좌선암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김치는 칠성대와 수행굴을 기록하고 있다. 조사한 문헌만으로 볼 때 수행굴과 칠성대·좌선암은 김상헌이 『남사록』에 언급한 이후, 김치의 『유한라산기』이하(<표 2> 참조)의 문헌에서 보인다.

영곡에 대한 묘사는 임제의 『南溟小乘』이 구체적인데, 조사한 문헌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이다. 오백장군동과 폭포수 그리고 古壇에 대한 임제의 기술은 이후 영실 尊者庵址의 위치를 추정하는데 다음과 같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五百將軍洞은 一名 靈谷이라 하는데 층층의 봉우리[巒]가 하얗고 깨끗하여 옥병풍을 친 듯 빙 둘러 있다. 세 길래의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수[懸瀑]가 한 골짜기[壑]로 거꾸로 쏟아진다. 그 사이에 古壇이 있고

26) 『耽羅志』濟州(牧)題詠「遊漢拏山記」, “……到官十餘日 適與閔君應生語 及漢拏之勝……時值四月八日 天雨初霽風日暄……緣水鐵川邊 信馬而上 躑躅杜鵑 照耀於岩石之間……行到二十餘里 憩于岸上 俯瞰絕磧 滿壑青林葱蒨可愛 打話移時 日已中 遂上馬入山 一逕如蛇縵紆屈曲 苦竹滿地 喬木參天……驗踰嶽入三長洞 由三長 越浦涯嶽 迤邐南到一精舍 高在煙霞下壓滄溟 卽尊者庵也 板屋八九間 蓋以草茅 不侈不陋 一胡僧出拜於門外 迎入禪堂 問其名則修淨也……使修淨前導 重岡複嶺路甚危險 或騎或步互相先後 度密穿深漸入佳境 行六七里 抵瀛室洞府頗寬敞 此亦古尊者庵基也 千尋蒼壁 環擁如屏 上有怪石狀如羅漢者 五百有餘 下有泉流決決潺潺 聽之如琴箏聲……從者曰 此距上峯 尙遠不可久留 不得已還出洞門 洞之東南山腰 有一石窟 名曰修行 昔有道僧棲於其中 廢埃至今猶在 由修行行十餘里 抵七星臺 自臺而東又過五里許 仰見石壁竝立 撐柱半空者 卽所謂上峰也.”

壇 위에는 복숭아나무가 홀로 서 있다.壇 위로 가서 무더기로 난 대나무[叢竹]를 깔고 앉아 남쪽의 큰 바다를 굽어보니 만 리가 온통 푸르다. 참으로 이 섬에서 제일로 치는洞天이라 하겠다.<sup>27)</sup>

즉 오백장군동은 일명 영곡으로 층층의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세 갈래의 폭포수가 한 골짜기로 떨어지고 그 사이에 古壇이 있는 곳이다.<sup>28)</sup> 김상헌은 靈谷이란 千佛峯(一名 行道洞)을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였다.<sup>29)</sup> 따라서 영곡은 五百將軍洞·千佛峯·行道洞을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영실은 영곡과 같은 곳으로 불리지만 이곳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설명이 약간씩 다르다. 즉 임제는 영곡(오백장군동)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아래의 경치만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증은 아래와 같이 영곡(오백장군동)의 윗골짜기를 영실이라 하고, 임제처럼 영곡 아래의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돌아오는 길에 瀛室에 들어갔는데 이른바 五百將軍洞이라 하는 곳이다. ……(오백장군동의) 윗골짜기[上洞]는 瀛室이다. 깎아지른 벼랑 천 길[千尺]이 둥그렇게 병풍[翠屏]처럼 에워싸고 있었다. 두 가닥의 氷瀑이 녹은 銀처럼 수 백 丈의 벽에 걸리어 있다. 아래는 두 계곡으로 되어 옥소리를

27) 『南溟小乘』(2月) 11日, “風和日暖 啼鳥相和 向晚 理荒籬 使金禮英持大斧 斫樹 鑿水 開路先導 或騎或步 或藍輿 往五百將軍洞 洞一名靈谷 層巒皎潔 環作玉屏 三道懸瀑 倒瀉一壑 其間有古壇 壇上有獨樹桃花 乃於壇上籍叢竹而坐 俯視南溟 一碧萬里 眞島中第一洞天.”

28) <그림 2>의 영주십경도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그림 상단의 설명은 이익태 목사의 「耽羅十景圖序」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29) 『南槎錄』卷2, 9月 24日 戊午條, “路上望千佛峯【一名行道洞 俗稱靈谷 諸峯怪石峭拔 如衆僧拱手 峯名以此】.”

내며 흐르는데 산 속에서 제일기는 경치임을 믿게 한다.<sup>30)</sup>

즉 영실은 오백장군동의 윗골짜기라는 것이다. 이증이 영곡에서 영실을 묘사하고 있다면, 이형상 목사와 김치는 영실에서 영곡을 바라보며 묘사하고 있다. 김치의 「유한라산기」와 이형상의 『남환박물』에는 다음과 같이 영실골짜기에서, 영곡과 임제가 묘사한 폭포수 아래의 경치를 기록하고 있다.

……6~7리를 가서 영실 골짜기[瀛室洞府]에 다다랐다. 자못 넓적하고 확 트였는데. 이곳 역시 옛 존자암 터이다. 천 길 푸른 절벽이 등그렇게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었다. 위에는 羅漢과 같은 형상을 한 怪石들이 있었는데 5백여 개나 된다. 아래에는 샘물이 졸졸졸 잔잔히 흐르고 있는데 거문고와 비파소리처럼 들린다.<sup>31)</sup> (김치, 「유한라산기」)

(한라산) 서쪽 산기슭 50리 밖에 영실골짜기[瀛室洞府]가 있다. 민간에 서는 五百將軍洞이라 한다. 천 길의 푸른 절벽이 둘러 있어 병풍을 늘어놓은 것 같다. 그 위로 羅漢과 같은 형상을 한 怪石들이 있는데 5백여 개나 된다. 아래에는 세 개의 폭포가 하나의 골짜기[壑]로 쏟아진다. (골짜기) 곁으로 古壇을 쌓았다.壇 위에 복숭아나무를 심었는데, 叢竹사이에 홀로서 있다. 위에는 수행동이 있고 그 골짜기[洞]에는 七星臺와 坐禪巖이 있다

30) 『南槎日錄』, “歸路入瀛室 所謂五百將軍洞者也 石峯競秀 或如騎馬被甲者 或如執鈞戟張幢幡者 列立蒼壁上 得名五百將軍者此也 上洞爲瀛室 懸崖千尺環擁如翠屏 兩條水瀑如鎗銀掛諸百丈壁也 下爲兩溪鳴玉而流 信山中第一勝景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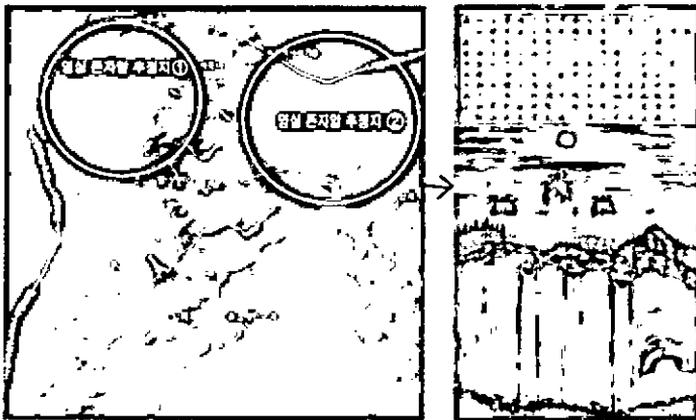
31) 『耽羅志』濟州(牧) 題詠「遊漢拏山記」, “使修淨前導 重岡複嶺路甚危險 或騎或步互相先後 度密穿深漸入佳境 行六七里 抵瀛室洞府 頗寬敞 此亦古尊者庵基也 千尋蒼壁 環擁如屏 上有怪石狀 如羅漢者 五百有餘 下有泉流泱泱 聽之如琴 節聲……從者曰 此距上峯 尙遠不可久留 不得已還出洞門 洞之東南山腰 有一石窟 名曰修行 昔有道僧棲於其中 廢埃至今猶在 由修行行十餘里抵 七星臺 自臺而東又過五里許 仰見石壁削立 撐柱半空者 卽所謂上峰也.”

고 한다. 이곳은 古僧의 八定之墟인데, 尊者庵이라고 한다.<sup>32)</sup>

(이형상, 『남환박물』, 1704)

즉 영실에서 영국 즉 오백장군동(영곡)을 바라보면 오백나한이 영실의 위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증처럼 오백장군동에서 영실을 바라보면 영실이 오백장군동 위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또 김치는 영실골짜기의 자못 넓직한 곳에 존자암터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형상은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 위쪽의 八定之墟를 존자암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이를 이원진의 『탐라지』에 ‘(존자암) 옛날에 한라산 瀛室에 있었다. 그 골짜기에 마치 승려가 도를 닦는 모습을 한 돌[石]이 있어, 민간에서 수행동이라고 전해온다.’<sup>33)</sup>라고 한 기록과 비교하면, 이형상은



〈그림 2〉 영실 존자암지 추정도(문헌기록)

영주십경-瀛谷

32) 『南宦博物』, 『誌地』, “西麓五十里有曰瀛室洞府 俗名五百將軍洞也 千尋蒼壁環爲列 屏 上有怪石狀如羅漢者凡五百 下有三瀑傾瀉一壑 傍築古壇 壇上植桃 獨立於叢竹之間……上有修行洞 洞有七星懸 坐禪巖云 是古僧八定之墟 其曰尊者庵.”

33) 『耽羅志』 濟州(牧) 佛宇 尊者庵, “舊在漢祭山瀛室 其洞有石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今移西麓外十里許 卽大靜境也.”

『탐라지』의 기록과 『남사록』에 묘사된 수행굴·칠성대·좌선암을 조합하여 존자암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기록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비교하면, 한라산 西嶺은 곧 瀛室이고, 그 골짜기에 승려가 도를 닦는 모양을 한 돌은 영실부근의 修行洞에 있었던 좌선암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1694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李益泰와 1706년 試才巡撫御史로 제주도에 온 李海朝의 기록을 보면, 존자암은 오백장군동 위쪽의 영실뿐만아니라 오백장군동 아래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瀛谷 : 한라산 서쪽 기슭 大靜 지경에 있다. 백록담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산등성이[崗]를 넘고 골짜기[壑]를 건너 25리를 오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절벽에 깎은 듯이 곧게 선 층층의 奇巖怪石들이 죽 벌여 있다. 그 꼭대기의 광경이 曠사 將軍이 칼을 찬 듯 하고 ……속칭 五百將軍洞, 혹은 千佛峯이라 하고, 일명 行道洞이라고 한다. 그 밑으로는 샘이 솟아 계곡을 이루어 길게 흘러가서 마르지 않는다. 골짜기[洞壑]는 넓고 평평하며 푸른 소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늘어서 있다.……옛날에 조그만 사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옮겨 갔다. 尊者庵이 있었던 廢址에는 계단과 주춧돌이 아직도 완전하다.<sup>34)</sup> (이익태, 『지영록』)

(한라산) 서쪽으로 산허리를 내려오며 七星岩, 修行窟을 지나 소나무 숲을 뚫고 20리를 가니 靈室이 있었다. 바위 봉우리들이 奇異하여 오래 머물며 구경하였다.<sup>35)</sup> (이익태, 『지영록』)

34) 『知瀛錄』, 「耽羅十景圖序」, “瀛谷 在漢拏山西麓大靜縣境 自白鹿潭南下西轉 越崗渡壑二十五里 懸崖絕壁削立層層奇巖怪石羅列 其巖壯似將軍帶劔 婉如美人整鬢 僂拜而仙舞 虎蹲而鳳翥 大小高低無非物像 俗稱五百將軍洞 或稱千佛峯 一名行道洞 其下湧泉成溪長流不竭 洞壑寬平松翠參天 牧場縱橫雲錦遍山 古有小刹今移 爲尊者庵廢址 階礎尙宛然.”

35) 『知瀛錄』, “西下山腰 過七星岩修行窟 穿松林行二十里有瀛室 岩巒奇異留翫

한라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20여 리를 가면 靈谷이 있다. 기이한 봉우리와 괴상한 돌들이 숲의 나무처럼 많이 벌여져 서 있는데 그 모습이 羅漢과 같고 5백 여 개나 되서 천불봉이라 부른다. 또 오백장군동이라고도 하며 그 아래에 샘물이 대나무 숲사이로 졸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는데 마치 거문고와 옥소리처럼 들린다. 그 가까이에 존자암의 옛터가 있다<sup>36)</sup> (이해조, 『명암집』)

오백장군동 아래에 있던 존자암은 샘이 솟는 부근의 평평한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익태는 아직도 계단과 주춧돌이 완연하다고 했다. 이해조 역시 간략하지만, 이익태의 기록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림 2>의 영실존암지 추정도는 김치와 이익태의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sup>37)</sup>이지만 존자암이 이 부근의 다른 곳에도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치와 이익태의 기록이 서로 90여 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이원진의 『탐라지』 기록과 부합하는 곳은 오백장군동 위쪽의 영실[추정지①]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2) 불레오름의 존자암

불레오름의 존자암은, 발굴조사 결과 14세기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의 위치는 김치의 기록(『유한라산기』)과 부합되는 곳이다. 김치는 노로오름[獐嶽]을 지나 三長洞으로 들어가서 浦涯嶽[불레오름]을 넘어 남쪽의 한 精舍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정사를 존자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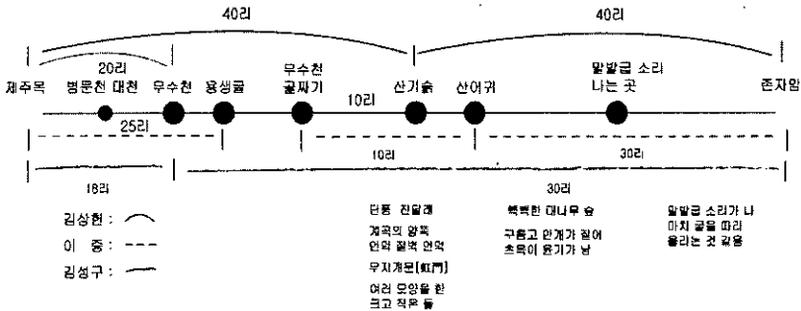
良久.”

36) 『鳴巖集』 권3, 詩 登漢挈山, “……自絕巔南下 西轉卅餘里 有靈谷 奇峯怪石 森羅環擁 狀如羅漢者五百餘 號千佛峯 又稱五百將軍洞 下有泉流 泱泱鳴於竹樹間 聽之如箏珮聲 傍有尊者庵故址.”

37) 추정지 ①과 ②는 각각 김치의 『유한라산기』와 이익태의 『탐라십경도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sup>38)</sup> 김치가 넘어 온 오름들은 영실보다는 볼레오름쪽에 가까운 것들이기 때문에, 영실의 존자암에 도착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 산신제를 지내러 가기위해 한라산에 등반하였던 김상헌과 이증, 그리고 김성구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같은 경로로 한라산에 오르고 있었고, 존자암에서 점심을 먹거나 쉬기도 하였다. 그리고 『남사일록』과 『남천록』의 기록이 『남사록』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여 이증과 김성구가 김상헌의 기록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제주목을 출발하여 무수천계곡에 이르고, 이곳에서 산 어귀를 지나 존자암에 도착할 때까지 묘사한 풍경이 거의 같은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림 3) 무수천에서 볼레오름 존자암까지의 산행 경로도

그러나 같은 경관을 보았음에도 그곳의 거리를 적은 부분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여정에서 존자암의 위치를 비정하는 것은 거리로 가늠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거쳤던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그림 3>은 김상헌 등이 제주목을 출발하여 존자암까지의 거리와 풍경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이들이 추정한 거리는 각각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이 지났던 경로와 풍경은 거의 유사하

38) 『耽羅志』, 濟州(牧) 題詠「遊漢拏山記」, “踰獐嶽入三長洞 由三長 越浦涯嶽 迤邐南到一精舍 高在煙霞下壓滄溟 卽尊者庵也.”

다. 따라서 김상헌과 이증, 그리고 김성구가 휴식을 취했던 존자암은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성구가 보았던 이곳의 존자암은 퇴폐한 지 오래되어 터만 남아 있었고 무수천과 30리의 거리에 있는 大靜縣에 속한 곳에 있었다.<sup>39)</sup> 임제는 都近川 상류를 거쳐 존자암에 도착하였는데, 이곳은 산 밑에서 30여 리 정도 된다고 하였다.<sup>40)</sup> 즉 임제가 산 밑이라고 한 곳은 도근천 상류로 여겨진다. 또 무수천이 朝貢川의 상류이고,<sup>41)</sup> 조공천이 도근천의 다른 이름인 것<sup>42)</sup>을 감안하면 도근천 상류는 곧 무수천이 된다. 따라서 임제가 머물렀던 존자암은 김성구 등이 휴식을 취했던 불레오름의 존자암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아울러 임제의 『남명소승』이 1577~1578년의 기록임을 감안하면, 1653년경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간 존자암이 아님이 확실하며, 1680년 이전에 폐사한 존자암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구와 동행했던 이증의 기록과 1694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익태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

(산신제를 마치고 내려오며) 尊者庵에 도착하여 朝飯을 하였다. 이 암자는 옛날에 靈室에 있었다. 그 골짜기에는 스님이 도를 닦는 것 같은 돌이 있어서 민간에서 ‘修行洞’이라 했는데, 지금은 서쪽 기슭 밖, 10리 쯤의 大靜지경으로 옮겨서 단지 遺墟만 남아 있다.<sup>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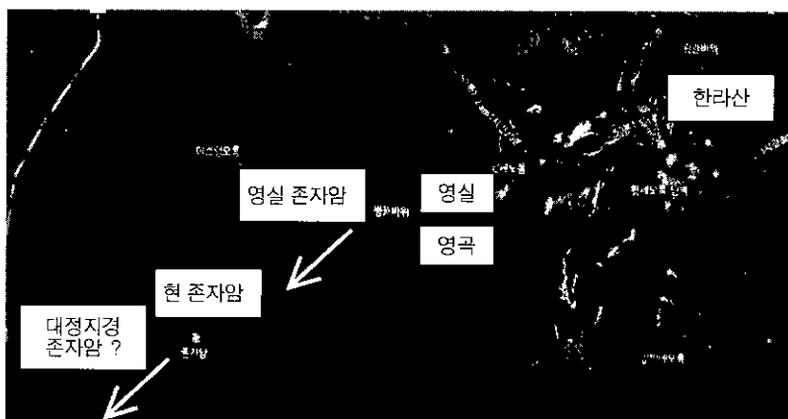
39) 『八吾軒集』, 권6, 「南遷錄」下, “午到尊者庵 距無愁川三十里 庵頽廢已久只有遺址 此則大靜所屬也.”

40) 『南溟小乘』(2月) 15日, “自山根至尊者 可三十里 自尊者來此 亦三十餘里 而仰絕頂 尙如平地之所謂高山者也.”

41) 『耽羅志』濟州(牧) 山川 無愁川, “在州西南十八里 朝貢川之上流 兩岸石壁奇險 多勝處.”

4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濟州牧 山川 都近川, “在州西十八里 一名 水精川 一名 朝貢川.”

43) 『南槎日錄』, (3월) 20일 己酉, “……到尊者庵朝飯 此庵舊在瀛室 其洞有石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今移西麓外十里許大靜境 只有遺墟.”



〈그림 4〉 존자암 이권 추정도 / 위성사진(네이버 지도)

(한라산) 서쪽으로 산허리를 내려오며 七星岩, 修行窟을 지나……20리를 가니 靈室이 있었다. ……또 10리를 가니 바로 尊者庵이다. 단지 남아 있는 것은 부서진 가옥과 몇 개의 기둥뿐이었다. 임시로 지은 집[假家]이 있었는데, 산에 놀러 왔다가 특별히 점심을 먹을 있도록 더 만든 곳여서 人馬를 쉬게 하였다.<sup>44)</sup>

즉 이증이 아침을 먹은 존자암은, 전날 산을 오를 때 점심을 먹었던 곳일 것이고, 14년 뒤 이익태가 방문했을 때에는 취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대정지경으로 옮긴 존자암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런데 10여 년 뒤에는 존자암이 아래와 같이 관원의 숙식장소로까지 이용되고 있었다.

대정현 지경에 유일하게 존자암이 있는데, 단지 草家 몇 칸 뿐이다. 역시

44) 『知瀛錄』, “西下山腰 過七星岩修行窟 穿松林行二十里有瀛室 岩巒奇異留旣良久 又行十里卽尊者庵 只餘破屋數楹 添作假家以爲遊山特中火之處 故休息人馬.”

승려는 살지 않는다. 다만 관원[別星]이 산에 오를 때 宿食할 뿐이다.<sup>45)</sup>

위 글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정현 지경에 유일하게 존자암이 있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17세기 말~18세기 초의 대정현 지경에 대한 인식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성구는 午時에 도착한 존자암이 대정현에 속한 곳이라 하였고, 이익태는 瀛谷이 한라산 서쪽 기슭 대정현 지경에 있다고 하였다.<sup>46)</sup> 이익태의 기록으로만 보면, 당시 한라산에서의 대정현 지경은 영실을 중심으로 한 서쪽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성구가 불레오름의 존자암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영실을 지나 40리가 되는 곳이자, 한라산 정상에서 아래로 15리가 되는 外求佛을 ‘본현(정의현)에 속한다’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sup>47)</sup> 당시 외구 음불은 대정현 뿐만 아니라 제주목과의 어떤 경계를 이루는 지표였을 것이다. 대정현 지경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이원진의 ‘지금은 서쪽 기슭 [山麓] 바깥 10리 쯤 되는 곳으로 옮겼는데 곧 대정현에 지경에 속한 지경이다.’<sup>48)</sup>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원진은 ‘서쪽 기슭 바깥’이라 하여 좀 더 구체적이다. 따라서 17세기 중반의 이원진의 기록과,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대정현 지경에 대한 인식이 해명되어야만 이형상의 기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5) 『南宦博物』, 「誌俗」, “無寺無僧無尼……大靜境惟一尊者菴 只是草屋數間 亦無居僧 但於別星上山時 宿食而已.”

46) 『知瀛錄』 「耽羅十景圖序」, “瀛谷 在漢拏山西麓大靜縣境.”

47) 『八吾軒集』 卷6 「南遷錄」 下, (三月) 19日, “……過瀛室洞 五百將軍洞 千佛峯 蓋諸峯怪石峭拔 如衆佛拱手 以形得名者也 到外求晉佛小憩 距尊者庵四十里 此則本縣所屬也 自此捨馬乘藍輿以上到絕頂 下則藍輿亦不便携 筇步上或坐或行 日暮始到頂上 距外求晉佛十五里.”

48) 『耽羅志』 濟州(牧) 佛宇 尊者庵, “舊在漢拏山瀛室 其洞有石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今移西麓外十里許 卽大靜境也.”

현 불레오름의 존자암과 대정지경으로 옮겨간 존자암과의 상관관계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상의 기록으로 볼 때 존자암은 영실과 불레오름, 그리고 대정지경의 3곳에 위치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존자암이 3곳이나 있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존자암 3곳이 동시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라산 속에 동시기에 同名을 사용하는 사찰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까닭을 찾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 중 존자암이 移建되었을 가능성도 3곳의 존자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 Ⅲ. 존자암의 移建 事由

#### 1. 세종대 음사의 제한과 산천단묘의 정비

영실존자암이 언제 어떤 이유에서 불레오름의 존자암으로 옮겨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 초기 국가 祀典의 성립과정에 따른 한라산신제의 변화양상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고려시대 영실존자암의 존재양상은 당시 산천신앙과의 습합정도, 탐라성주와의 관계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데 민간에서의 산신제를 淫祀로 규정하고 이를 유교적 致祭방식으로 祀典을 개편해 나갔던 조선 초기의 상황은 영실존자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먼저 영실존자암의 존재양상을 살펴보고, 조선 초기 山川祭祀개편과정이 영실존자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삼국시대에는 한라산을 탐라의 주산으로 모시고 산신제를 지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아라동주민자치위원회, 2010: 158쪽), 고려시대에는 탐라의 신에게 濟民의 호를 내리고 고려의 명산대천 예에 따라 시행되기

도 하였다.<sup>49)</sup> 고려시대의 산천제는 대체로 兵亂에 대한 護國과 祈雨를 위해 행해졌는데, 災變에 대한 祈禳과 救病을 위해서도 거행되었다(김철웅, 2001: 135-136쪽). 특히 농업과 관련된 祈穀·祈雨가 국가 사전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었는데 신라이래의 산천신앙이 당시 불교·도교의식과 혼합되면서,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산천제가 널리 행해졌다(김철웅, 2001: 147-151쪽). 산천신앙과 불교·도교의 접수는 묘청의 八聖堂 건립건의가 대표적인데, 단순한 불교와 산천신앙의 습합이 아니라 佛僧의 입장에서 山神을 佛·菩薩과 一體化하려 했던 것이다(한우근, 1979: 169-170쪽). 이러한 고려시대 산천제의 성격은 당시 영실에 있었던 존자암의 존재 양상을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古來로 한라산에서 산신제를 지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 임제의 『남명소승』에 古壇이 있었다는 기록과, 김상헌과 이증의 백록담 북쪽 모퉁이의 기우제단에서 山神祭를 지냈다는 기록일 것이다.

또한 漢拏山에 고려시대 신선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때<sup>50)</sup> 탐라 星主와 한라산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탐라 성주와 왕자의 후손인 高景斗와 梁樞의 묘비명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 한라산을 그들의 시조와 연관 짓고 있다.

49) 『高麗史』, 世家 24, 高宗 癸丑 40年(1253) 十月 戊申條 “國內名山及耽羅神祇各加濟民之號 太廟九室 及十九陵 並加上尊諡.”

50) 漢拏山이란 명칭은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는 높은 산임을 뜻하는데, 이것은 天仙界와 地仙界를 매개하는 靈山이라는 생각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선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星主는 역시 天仙界 北斗七星을 상징하는 道敎의 신선사상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는 북두칠성이 천상계와 인간 세상을 호령하는 人君에 비유되었기 때문이다(진영일(2008), 「영주지와 한라산」,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401-406쪽).

“처음에 神人 高乙那가 漢拏山에 내려와서 마침내 탐라의 君長이 되었다고 한다……고씨는 名族이요 또 神人의 후예로서 대대로 벼슬하는 이가 끊이지 않았다.”<sup>51)</sup> (장유, 「學生高公墓表」)

병인년(1626)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삼년상을 마치고 翊衛司洗馬에 보임되고 의금부 도사로 옮겼다. 일찍이 명을 받들고 제주에 갔다가 犧牲과 甘酒를 갖추어 漢拏山에서 始祖에게 제사를 지냈다.<sup>52)</sup>

(윤중, 「戶曹佐郎梁公墓碣銘」)

즉 위의 두 묘비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경두가 한라산에서 내려와 탐라의 군장이 되었던 神人 고을나의 후손이라는 것과 양원(1590~1694)이 제물을 갖추어 한라산에서 그의 시조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점이다. 물론 양원이 제사지낸 한라산은 지금의 毛興穴(三姓穴)일 것이다. 그러나 한라산이 三姓의 탄생지로 인식되면서부터는<sup>53)</sup> 고씨와 양씨에게 神人의 후예라는 정통성을 보장해 주는 곳이 되었을 것이다.

고려시대 한라산의 산천신앙과 이곳을 三姓의 탄생지로 설정한 三姓 신화와의 결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홍유손의 「尊者庵改構侑因文」(1507)과 七星臺일 것이다. 홍유손은 존자암이 三姓이 처음 일어날 때 창건되었다고 보았는데, 鄭以湄가 지은 「성주고씨가전」에 “한라산의 신령한 和氣가 내려 神人을 산의 북쪽 모퉁에서 化生케 하였다”라고

51) 『谿谷先生集』, 권12 墓碣 「學生高公墓表」, “公諱景斗 字應壽 高氏系出耽羅 始神人高乙那 降于漢拏山 遂爲耽羅君長 子孫歷仕羅麗…高名族 又神人之裔 歷世不乏衣冠.”

52) 『明齋遺稿』 권39, 墓碣銘 「戶曹佐郎梁公墓碣銘」, “……丙寅 丁內艱 服闋 補翊衛司洗馬 遷義禁府都事 嘗奉命往濟州 具牲醴祀上祖於漢拏山.”

53) 『東文選』 권101, 傳 「星主高氏家傳(鄭以湄)」, “耽羅之境 初未嘗有人 其山奇秀 曰漢拏 宛在雲 海渺茫之上 降其神靈和氣 化生神人于山之北 毛興穴 三者同時湧出 曰高乙那 良乙那 夫乙那 而高乙那 卽高氏鼻祖也.”

되어 있어, 영실존자암과 한라산, 그리고 탐라 성주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김상헌·김치·이증 등이 지나갔던 오백장군동(천불봉) 아래의 七星臺를 제주 성내에 있었던 七星圖<sup>54)</sup>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이들의 관계는 좀 더 명확해진다.

또한 최근 발간된 보고서는 출토된 명문기와를 바탕으로 정의현 巨族들이 불레오름의 존자암에 施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불레오름 존자암에 출토된 ‘天丑開啓’명문기와(수키와)를 정의현 官衙址에서 출토된 ‘癸丑開局’와 명문기와(암키와)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홍유손의 「尊者庵改構侑因文」과 「旌義官舍重新記」를 근거로<sup>55)</sup> 정의현 大族들이 (불레오름) 존자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施主했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sup>56)</sup>

그런데 정의관사 중수가 고을의 良家와 巨族 가운데 衙會에 근무하는 이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어<sup>57)</sup> 이들을 성주와 왕자의 직을 계승한 土官層<sup>58)</sup>으로 볼 수 있다. 토관층은 1445년(세종 27) 左·右都

5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濟州牧, 古跡 七星圖, “在州城內 石築有址 三姓初出 分占三徒 做北斗形築臺分居之 因名七星圖.”

55) 「존자암개구유인문」에는 정의현 대족들이 惡疾에 많이 걸려 존자암의 옛터에 암자를 重修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실려 있고, 「정의관사중신기」에는 정의현의 良家과 巨族들에 의해 관사가 중창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56)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명문기와의 癸丑年을, 1422년에 정의현성을 성읍리로 옮겨 읍성을 쌓기 시작한 기록을 근거로 1433년(세종 15)으로 추정하였는데, 1400~1500년의 어느 시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1), 「旌義縣 官衙址」, 147-148쪽).

57) 『篠菴遺稿』 上文 「旌義官舍重新記」, “……今明宰金侯從俊 來莅于縣 臨其官滿 顧瞻公宇 常咨嗟 意若有不平焉 鄉中良家巨族之仕於衙會者 一日齊伏 奉問厥由 侯曰 余備官爾邑 每見館宇 欲理其毀而新其舊者 久矣 因循於今日 而貽繕於後日 其可乎 吾所憂者是已 咸曰 某等敢不承明府之意耶 寧盡改而新之 豈止修之補之而已哉.”

58) 제주 토관층은 상층·중층·하층의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층은 星主

知管이 혁파되고 가지고 있던 印信이 회수될 때까지<sup>59)</sup> 수령과 병립하면서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었으며 1425년(세종 7) 이들의 수는 629명이었다.<sup>60)</sup> 제주도에서 토관제가 실시된 것은 1295년(충렬왕 21)부터라고 여겨지는데(김동전, 1991: 13쪽), 성주가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제주를 지배하던 성주사대를 938년(고려 태조 21)~1402년(태종 2)으로 보기도 한다.<sup>61)</sup>

따라서 불레오름 존자암에 시주한 정의현 대족들을 탐라 성주의 후손으로 본다면, 이 보다 앞선 시기에 탐라 성주층이 영실존자암에 施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香徒이다. 불교신앙을 바탕으로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고려시대의 향도는 석탑이나 불상, 종을 함께 조성하기도 했지만 상당한 재력을 요하는 다양한 불사도 있었기 때문에 시주가 가능한 층이 되어야 참여할 수 있었다(이해준, 2003: 187-191쪽). 불레오름 존자암의 建立을 주도한 萬戶兼

(1402 : 左都知管, 1404 : 都州官左都知管) · 王子(1402 : 右都知管, 1404 : 都州官右都知管), 중층은 都千戶(1404 : 都司守) · 上千戶(1404 : 上司守) · 副千戶(1404 : 副司守), 하층은 各 所의 千戶, 上 · 副百戶, 百戶(1407이전) 등이다(김동전(1991), 「朝鮮時代 濟州島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濟州島史研究會』 창간호, 濟州島史研究會, 14-17쪽과 『世宗實錄地理志』, 『太宗實錄』 권7, 太宗, 4年 4月 辛卯條, 『世宗實錄』 권45, 世宗 11年 7月 壬申條를 참고하여 작성함).

59) 『世宗實錄』, 권108, 世宗 27年 6月 辛酉條, “議政府據兵曹呈啓 濟州雖在海外然已爲郡縣治牧守 其鄉中諸事 固當依他例 京在所專掌糾理 而其州族姓稱爲左右都知管 至造印信 役使良民 非徒有違於例 民實受弊 請革都知管 收其印信 減其奉足之半 鄉中諸事 依他例京在所考察 千戶百戶等職 沿邊各官通例 請仍其舊 奉足亦減其半 有關勿補 從之.”

60) 『世宗實錄』, 권29, 世宗 7年 7月 壬午條.

61) 이 시기는 耽羅國 太子 末老가 入朝하여 星主王子의 爵을 받은 938년부터, 이 爵位가 左都知管 · 右都知管으로 바뀌게 되는 조선 태종 2년(1402)까지 464년간이다(진영일(2008),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403쪽, 각주 514).

牧使 金沖光(재임 1383~1385추정)은 水精寺의 불사를 봉행한 인물로도 여겨진다.<sup>62)</sup> 그러나 홍유손의 위 두 글을 참고해 보면 김충광의 주도보다는 정의현 대족 또는 향도들의 염원에 의해 존자암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63)</sup> 김충광이 불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정사는 1408년(태종 8) 노비가 130口, 불레오름 존자암 인근의 법화사는 노비가 280口였다.<sup>64)</sup> 두 사찰은 모두 국가에서 토지나 노비가 지급된 비보사찰이었기 때문에, 창건이나 중수의 경우 국가나 귀족들에 의해 주도(전영준, 2005: 63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찰의 불사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匠人이 필요했는데, 지방의 사찰에서는 官工匠보다는 신앙단체에 소속된 私工匠이나 인근 사원의 僧匠이 동원이 용이했을 것이다(전영준, 2005: 65-66쪽). 그러므로 불레오름 존자암 건립을 주도했던 김충광의 역할은 施主보다는 수정사나 법화사 소속의 僧匠을 동원하는 일이었을 것이고, 그에 필요한 財力은 정의현 大族 또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香徒의 施主에 의해 충당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탐라 성주층 역시 영실존자암에서 이들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조선 초기 산천제사의 개편은 고려시대 未分等第된 산천제를 유교적인 예제로써 범주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즉 불교·도교가 습합된

62) 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도(1996), 「부록2 '修正禪師大夫金沖光 銘文瓦」, 『尊者庵址』; 현문필(2011), 「존자암의 創建에 관한 고찰」, 『濟州道研究』 35집, 제주학회.

63) 『篠叢遺稿』上 文 「尊者庵改構侑因文」, 在濟州, “……旌縣大族 惡疾多【缺】由庵之既廢矣 風雨時乖 年穀或歉 因庵之不修矣 自其閭右之豪 公門之官 以至于耒鋤之夫 井臼之婦 與其杖巷之耆耆 樵牧之童兒 莫不相感告語.”

64) 『太宗實錄』 권15, 太宗 8年 2月 丁未條, “議政府啓定濟州法華 修正二寺奴婢之數 啓曰 據濟州牧使呈 州境裨補二處 修正寺見有奴婢一百三十口 法華寺見有二百八十口 乞將兩寺奴婢 依他寺社例各給三十口 其餘三百八十二口 屬典農從之.”

고려시대 산천제를 부정하고, 그 동안 민간에서 행해졌던 致祭를 淫祀로 규정하여 국가 주도하의 유교적인 산천제로 바꾸려는 것이었다(김해영, 2004: 20쪽). 전국 산천에 대한 제사개편은 大祀·中祀·小祀의 범위를 정한 후인<sup>65)</sup> 1413년(태종 13) 6월 예조의 요청에 의해 구체화 된다. 이때 예조는 唐의 『禮樂志』와 宋의 『文獻通考』를 상고하여 境內 名山大川과 諸山川의 等第를 나눌 것을 요청하고,<sup>66)</sup> 이듬해(1414) 8월에 山川祀典制度를 올려 嶽·鎮·海·瀆을 中祀로 名山·大川을 小祀로 편입시키고 각 도별로도 안배한다.<sup>67)</sup> 이때 한라산은 小祀에 편입되지 못하여 사전에서 누락된다.<sup>68)</sup> 그러나 소사는 태종대 후반기 전체의 범주가 확정된 대사와 중사와 달리 특정 시기에 확정되지 못하고 『국조오례의』가 편찬되는 성종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한다.<sup>69)</sup> 이는 명산·대천에

65) 『太宗實錄』 권25, 太宗 13年 4月 辛酉條, “禮曹上諸祀之制 啓曰 謹按前朝 詳定古今禮 社稷宗廟別廟爲大祀 先農先蠶文宣王爲中祀 風師雨師雷師靈星司寒馬祖先牧馬步馬社稷祭七祀州縣文宣王爲小祀 臣等歷稽古典 朝參酌得中 …… 伏望風雲雷雨之神 陞入中祀 山川城隍同祭 州縣釋奠 亦陞中祀 其餘諸祀等第 一依前朝詳定禮 從之.”

66) 『太宗實錄』 권25, 太宗 13年 6月 乙卯條, “我太祖卽位之初 本曹建議 各官城隍之神 革去爵號 但稱某州城隍之神 卽蒙俞允 已爲著令 有司因循至今莫之舉行 爵號像設 尙仍其舊 以行淫祀 伏望申明太祖已降教旨 但稱某州城隍之神 只留神主一位 其妻妾等神 悉皆去之 山川海島之神 亦留主神一位 皆題木主曰某海某山川之神 其像設 竝皆徹去 以正祀典 從之 禮曹又啓 一 謹按唐 禮樂志 岳鎮海瀆爲中祀 山林川澤爲小祀 文獻通考 宋制亦以岳瀆爲中祀 本朝承前朝之制 山川之祀 未分等第 境內名山大川及諸山川 乞依古制分等第.”

67) 『太宗實錄』 권28, 太宗 14年 8月 辛酉條, “禮曹上山川祀典之制 謹按唐禮樂志 嶽鎮海瀆爲中祀 山林川澤爲小祀 文獻通考 宋制 亦以嶽鎮海瀆爲中祀 本朝承前朝之制 山川之祀 未分等第 境內名山大川及諸山川 乞依古制 分等第 從之 嶽海瀆爲中祀 諸山川爲小祀.”

68) 이 때문에 한라산은 『世宗實錄』五禮와 『國朝五禮儀』에도 누락되었으며, 1703년 이형상 목사의 장계에 의해 비로소 小祀에 편입되어 雉岳山과 鷄龍山의 祭例와 祝文式에 따라 정월·2월·7월에 제사를 설행하게 된다.(『肅宗實錄』 권38, 肅宗 29年 7月 癸酉條).

대한 봉작제의 폐지와 사적 致祭금지가 1424년(세종 6)<sup>70)</sup>에 이루어지고, 壇廟와 神牌제도가 1437년(세종 19)에 詳定<sup>71)</sup>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불완전한 명산·대천의 정비는 한라산 致祭에 대한 조정의 모호한 입장에서도 보인다.

제주도의 경우 1414년 山川祀典制度를 마련하기 이전인 1412년(태종 12)에는 檢校漢城尹 高忠彦<sup>72)</sup>을 濟州都司守로 삼고 漢拏山川의 神에게 제사지내도록 旨을 내려주었다.<sup>73)</sup> 그런데 1418년(태종 18) 4월 예조에서 漢拏山祭에 대한 儀式을 올려<sup>74)</sup> 비로소 한라산이 국가사전에 편입되는 듯 했지만, 2개월 뒤에는 諸山の 初祭日에 맞춰 제사를 지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祀典에 실리지 않았다면 제사를 거행하기 어렵다는 태종의 하교까지 있었다.<sup>75)</sup> 즉 태종은 山川祀典制度가 정비되기 이전에는 한라산의 致祭를 허용하였으나, 祀典에 편입되지 못하자 致祭하는

69) 고려시대의 소사에는 없다가 조선에 새로 편입된 것은 노인성, 명산·대천, 포제, 칠사, 여제, 마제, 독제 등인데, 이 가운데 포제, 여제, 마제는 『世宗實錄』 五禮에도 보이지 않다가 『國朝五禮儀』 단계에서 처음 나타난다(한형주(2002), 『조선 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176-178쪽).

70) 『世宗實錄』 권23, 世宗 6年 2月 丁巳條.

71) 『世宗實錄』 권76, 世宗 19年 3月 癸卯條.

72) 토관직인 都州官左都知管은 摠制 高鳳禮 世職으로 그의 간청에 의해 큰아들 高尚溫이 승습하게 된다. 그런데 의정부의 청으로 고봉례를 대신하여 고충언을 都州官左都知管으로 임명하고 이때에 다시 都司守로 삼은 것이다(『太宗實錄』 권22, 太宗 11年 8月 丙辰條; 『太宗實錄』 권23, 太宗 12年 2月 丙寅條).

73) 『太宗實錄』 권23, 太宗 12年 3月 戊申條, “賜檢校漢城尹高忠彦紅袍荔枝金帶忠彦以濟州都司守將還 有是賜 仍降香 祀漢拏山川之神.”

74) 『太宗實錄』 권35, 太宗 18年 4月 辛卯條, “禮曹上濟州文宣王釋奠祭儀及漢拏山祭儀 釋奠儀依各道界首官例 漢拏祭依羅州錦城山例 載諸祀典 春秋致祭.”

75) 『太宗實錄』 권35, 太宗 18年 6月 丁未條, “禮曹啓 濟州漢拏山 以諸山初祭日併祭之 教曰 諸山既皆祭之 獨此一山 何不祭之 若祀典不載 則不宜輕舉 前此 濟州牧官無乃祭之乎 置之前規可也.”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왕을 대신한 致祭者가 토관직인 都司守에서 濟州牧官으로 바뀐 점이다. 치제자의 변화는 1416년(태종 16) 제주 삼읍 체제의 정립<sup>76)</sup>과 동년 9월 畿外의 산천제사는 所在 監司와 各官 守令이 祭告키로 한 예조의 건의<sup>77)</sup>를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1416년 이전까지 제주 토관에 의해서도 한라산에 대한 치제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한라산신제의 치제자이자 영실존자암에 시주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탐라성주충은, 산천신앙과 불교의 습합을 주도하였던 매개자로 생각되며 이들에 의해 고려시대에 영실존자암의 성격이 변모되어 갔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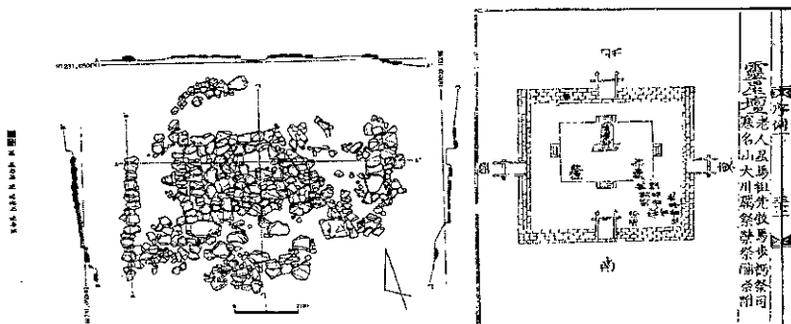
여말선초 존자암의 존재양상은 세종대 壇壝제도 개편과정과 旱災를 극복하기 위한 禱雨(祈雨)행사에서 살필 수 있다.

먼저 불레오름 존자암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 건물지는 발굴보고서에서 碑閣址로 추정한 것이지만 규모와 위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國朝五禮儀序例』(1474) 「壇廟圖說」에 규정된 名山·大川의 壇의 규모와 너무 비슷하다. 「壇廟圖說」에는 壇의 사방 [方]이 2丈 1尺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략 6m에 해당한다. 실측도면 역시 거의 6m 정도 되고 단의 방향도 북쪽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비각지로 보고된 건물지는 비각이 아닌 靈星·老人星·名山大川 등의 제사를 지냈던 단으로 추정된다.<sup>78)</sup>

76) 『太宗實錄』 권31 太宗 16年 5月 丁酉條.

77) 『太宗實錄』 권32, 太宗 16年 9月 辛卯條, “禮曹上嶽嶽山川行祭之式 畿內則朝官差遣 畿外則所在監司與各官守令以時祭告 從之.”

78) 『國朝五禮儀序例』, 권1, 吉禮 「壇廟圖說」 靈星壇 “靈星壇 老人星 馬祖 先牧 馬步 禱祭 司寒 名山大川 厲祭 榮祭 醮祭 附 / 靈星 靈星龍左角 爲天田主穀壇在 南郊 方二丈一尺 高二尺五寸 四出陞一壇二十五步 神座在北南向 大川……

〈그림 5〉 비각지 및 담장지 실측도<sup>79)</sup>

『국조오례의서례』 「단묘도설」

그렇다면 이 단은 언제 어떤 이유로 축조된 것일까? 단유체제의 정비는 1413년 6월 산천의 봉작폐지 및 분등논의와 함께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그런데 이때까지 법식에 따라 축조된 단은 단지 사직단과 풍운뢰우단 뿐이었고, 소사에 해당하는 영성·사한·마조 등의 단의 축조되지 않은 상태였다.<sup>80)</sup> 이듬해 8월 전국의 산천을 中祀와 小祀로 등급을 나눌 때 名山大川은 小祀에 편입되기는 하지만 단의 규모에 대한 논의는 세종대에 가서 구체화된다. 즉 태종대에 국가제사의 분등이 거의 확정되고 그에 따른 단의 정비가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명산대천의 단의 규모는 세종대에 와서야 실질적으로 논의된다. 1426년(세종 8) 8월 예조는 祀典에 기재되어 있는 외방 각도의 神廟와 壇場의 제도가 일정

壇制典靈星壇 無壇則有廟三間.”

79) <그림5>는 발굴보고서에 수록된 비각지와 담장지의 규모를, 『국조오례의서례』 「단묘도설」 과 비교한 것이다(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도(1993), 『尊者庵址』—發掘調査中間報告—, 41쪽 도면10 비각지 및 담장지 실측도).

80) 『太宗實錄』 권25, 太宗 13年 6月 乙卯條, “改正祀典 禮曹啓曰…… 一, 諸祀壇壝內 唯社稷壇 風雲雷雨壇 如式造築 其餘靈星 司寒 馬祖 先農 馬社 馬步 仲農 後農壇壝 並未造築 先農 先蠶 老人星 北郊厲祭壇壝 雖已造築 亦不如式上項壇壝 稽古制 相地造築.”

치 않으니 매년 봄과 가을에 禮官을 각 도에 보내어 순찰 점검해 줄 것을 청하게 된다.<sup>81)</sup> 1430년(세종 12) 초반부터 파견된 各道山川壇廟巡審別監의 보고가 이어지는데<sup>82)</sup> 동년 8월에는 각 도의 壇壝가 모두 일정하지 않으니 옛 제도에 따라 단유를 쌓아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sup>83)</sup> 그리고 이 해 12월 예조에서는 순심별감의 보고를 바탕으로 단유체제를 올리게 된다. 즉 小祀인 名山大川壇과 所在官이 행제하는 단은 靈星壇의 제도에 의거하여 사방이 2장 1척, 높이 2척 5촌, 1유로 하고, 사방으로 계단을 내되 3층씩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sup>84)</sup>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소재관이 行祭하는 단이다. 1414년 8월 국내 명산대천을 중사와 소사로 나눌 때, 소사에 편입된 곳은 이전에 소재관이 행제하던 곳이었다. 이때 경기의 龍虎山과 華嶽山, 永吉道の 白頭山 등은 사전에 편제되지 못하고 예전처럼 所在官이 행제하게 한다.<sup>85)</sup> 이

81) 『世宗實錄』 권33, 世宗 8年 8月 辛巳條, “禮曹啓 祀典所載諸神廟及壇場 京中則奉常寺專掌考察 但外方各道 緣無檢察之法 或祠宇傾頽 或壇壝圯毀 饌品不秩 祭器不備 有乖敬神之意 請每年春秋發遣禮官 忠清 全羅 慶尙道一年 京畿 江原 咸吉道一年 留後司 黃海 平安道一年 周而復始 巡審考察 從之.”

82) 『世宗實錄』 권48, 世宗 12年 4月 戊寅條 ; 『世宗實錄』 권49, 世宗 12年 8月 甲戌條 ; 『世宗實錄』 권76, 世宗 19年 3月 癸卯條.

83) 『世宗實錄』 권49, 世宗 12年 8月 甲戌條, “禮曹據各道山川壇廟巡審別監所申條件 磨鍊以啓…… 各官壇壝之制 長廣高低不一 又無垣墻 故人畜踏毀污穢 宜考古制 令各道築壇壝 竝造壘坎 而繚以周垣 南作一門 常加扃閉.”

84) 『世宗實錄』 권50, 世宗 12年 12月 甲戌條, “禮曹啓 各道壇壝體制 非唯長廣高低不一…… 小祀名山大川壇及所在官行祭壇 依靈星壇制 方二丈一尺 高二尺五寸一壝 四出陞各三級造築 而壘坎亦依上項壘坎體制造作 從之.”

85) 『太宗實錄』 권28, 太宗 14年 8月 辛酉條, “禮曹上山川祀典之制 …… 京城木覓 京畿五冠山 紺岳山 楊津 忠清道雞龍山 竹嶺山 楊津溟所, 慶尙道弓弗神館主屹山 全羅道全州城隍 錦城山 江原道雉嶽山 義館嶺 德津溟所 豐海道牛耳山 長山串 阿斯津 松串 永吉道永興城隍 咸興城隍 沸流水 平安道清川江 九津 瀾水皆小祀 在前所在官行 京畿龍虎山 華嶽 慶尙道晉州城隍 永吉道顯德嶺 白頭山 此皆仍舊所在官自行.”

가운데 경기도 가평의 華嶽山(花岳山)은, 앞서 단으로 추정된 불례오름의 비각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화악산은 『세종실록』지리지(1454)에 “봄과 가을에 소재관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한다.”<sup>86)</sup>라고 되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花岳山祠에서 봄과 가을에 본읍에서 치제한다.’<sup>87)</sup>라고 되어 있다. 화악산은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서례』에 국가 사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1429년 한라산처럼 영험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었다.<sup>88)</sup> 또 1437년 악·해·독·산천의 단묘와 신패의 제도를 상정할 때, 예조에서는 화악산의 단이 평지에 있었기 때문에 산기슭에 단을 설치하기를 청하였다.<sup>89)</sup> 한라산의 경우 『세종실록』지리지에, ‘진산인 한라산에 官員이 제사를 지낸다.’<sup>90)</sup>라고 되어 있다. 즉 한라산은 화악산처럼 사전에 오르지 않았지만 관원에 의해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또 강원도 원주목의 瑠瑟岬山과 洪川縣의 八峯山 역시 사전에 오르지 못했지만 관원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sup>91)</sup>, 1429

86) 『世宗實錄』 권148, 「地理誌」, 京畿 楊州都護府 加平縣, “花岳 在縣北 其北爲狼川界春秋令所在官行祭.”

8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 京畿 加平縣 「祠廟」, “花岳山祠 春秋本邑致祭.”

88) 『世宗實錄』 권46, 世宗 11年 11月 癸丑條, “禮曹啓……請勿分靈驗與否 除永革及不知祭所者外 並依國行岳瀆山川祭品例 以國庫米穀致祭祭後監司移文本曹以爲恒式 留後司開城大井 京畿 海豐白馬山 加平華嶽山……全羅道 羅州仰巖龍津 潭陽任內原栗龍津噴所 長興天冠山 務安龍津溟所 康津莞島 靈巖月出山 光州無等山并老只龍堂 龍潭熊津噴所 濟州漢孛山……江原道 原州瑠瑟岬山 洪川八峯山.”

89) 『世宗實錄』 권76, 世宗 19年 3月 癸卯條, “禮曹據諸道巡審別監啓本 詳定嶽海瀆山川壇廟及神牌制度 京畿……加平縣 華岳山壇在縣內平地 引請行祭 位版書華嶽護國之神 請於山麓設壇.”

90) 『世宗實錄』 권148, 「地理誌」, 全羅道 濟州牧, “鎮山 漢孛在州南 一曰頭無岳 又云圓山 其官行祭.”

91) 『世宗實錄』 권148, 「地理誌」, 江原道 原州牧, “瑠瑟岬山 在酒泉縣北 其官行祭.”

『世宗實錄』 권148, 「地理誌」, 江原道 原州牧 洪川縣, “八峯山 在縣西 春秋 其

년 영험처로 인정되었다.<sup>92)</sup> 1437년 단묘와 신편제도의 상정 때 흥천현 팔봉산은 祠廟가 산 정상에 있어 오르내리기 위험하므로 단을 설치하고자 하였고, 원주목의 거슬갑산은 山麓에 다시 단을 세우고자 하였다.<sup>93)</sup> 한라산은 이때 누락되었지만 화악산·거슬갑산·팔봉산의 경우로 비추어 볼 때, 단을 세우고 제사지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즉 불레오름 존자암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은 소재관 행제의 예에 준하여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단유제도는 1431년(세종 13) 예조의 詳定<sup>94)</sup>과 1432년 집현전의 논의를 거쳐 체제를 갖추었고<sup>95)</sup>, 1437년(세종 19)에 비로소 詳定하게 된다.<sup>96)</sup> 그리고 이때의 단유체제가 『국조오례의서례』<sup>97)</sup>에 거의 반영된 것으로 보아 1431년에 이미 명산대천과 소재관 행제의 단 규모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1424년 세종은 祀典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산천·성황에 대한 私的 致祭가 끊이지 않아 名分이 엄숙하지 못하게 되자,

官行祭.”

92) 『世宗實錄』 권46, 世宗 11年 11月 癸丑條.

93) 『世宗實錄』 권76, 世宗 19年 3月 癸卯條, “江原道……洪川縣八峯山祠廟位版 書八峯山大王之神 請削大王二字 且祠廟在山上極險 上下勢難 請擇地設壇 原州任內酒泉縣踰瑟岬山祠廟 在縣內平地 位版書踰瑟岬山之神位 請削位字 更於山麓擇地設壇.”

94) 『世宗實錄』 권76, 世宗 19年 3月 癸卯條.

95) 世宗實錄』 권57, 世宗 14年 9月 丙辰條.

96) 『世宗實錄』 권76, 世宗 19年 3月 癸卯條, “禮曹據諸道巡審別監啓本 詳定嶽海濱山川壇廟及神牌制度……一 壇壝之制 宣德六年 本曹詳定中祀 嶽海濱 依風雲雷雨壇制 方二丈三尺 高二尺七寸 兩壇 小祀名山 大川壇及所在官行祭壇 依靈星壇制 方二丈一尺 高二尺五寸 一壇 四出階 各三級 今各官祭壇 高低廣狹不一 依本曹受教規式改築.”

97) 『國朝五禮儀序例』 권1 吉禮 「壇廟圖說」 靈星壇, “靈星壇 老人星 馬祖先牧 馬步 禱祭 司寒 名山大川 厲祭 祭祭 醮祭 附 / 靈星 靈星龍左角 爲天田主穀 壇在南郊 方二丈一尺 高二尺五寸 四出階 一壇二十五步 神座在北南向.”

詳定提調 星山府院君 李稷 등에게 산천에 封爵하는 것과 廟를 세우는 것을 古制에 따라 상고하여 아뢰 것을 명한다.

“각 처의 성황과 산신을 혹 太王·太后·太子·太孫·妃라고 칭하는 것은 이치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며, 이것들은 진실로 妖神이다. 옛날에는 壇을 산 밑에 설치하고 제사하였는데, 이제 紺嶽 등과 같은 산에는 廟를 산 위에 세우고 그 산을 밟으며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너무 지나치고 하는 것이 무례하고 거만하여 不敬하다. 古禮에는 오직 국왕만이 封內의 산천에 제사하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庶人이 모두 제사하고 있으니, 명분이 엄숙하지 못하다. 나는 壇을 산 밑에 설치하고 神板을 두되, 다만 某山之神이라 쓰고 國祭로만 행하게 하여, 民間에서의 淫祀를 禁止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바르게 하려 한다. 경등은 모두 산천에 封爵하는 것과 廟를 세우는 것을 古制에 따라 상고하여 아뢰라.”<sup>98)</sup>

즉 세종은 산 위에 있는 廟를 산 아래로 내리고, 봉내의 산천제사를 국행으로만 하여 명분을 바로잡고 민간의 음사를 금지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이유 등에 의해 불례오름 존자암에 단이 세워졌을 것이다.

한라산 정상에서의 민간 치제 사례는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서 보인다. 이약동 목사는 한라산 정상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일어 죽는 사람이 많게 되자, 재임 시(1470~1473)에 南城 밖 20리에 한라산신묘를 창건한다.<sup>99)</sup> 이때 창건사유는 흥천현 팔봉산처럼 祭場이 위험한 곳에 있었

98) 『世宗實錄』 권23, 世宗 6年 2月 丁巳條, “上命詳定提調星山府院君李稷等曰 各處城隍及山神或稱太王 太后 太子 太孫 妃 無理爲甚 是誠妖神 古者設壇於山下而祭之 今若紺嶽等山 立廟於其山之上 履其山而祭其神 狎褻不敬 且古禮唯國君得祭封內山川 今庶人皆得祭焉 名分不嚴 予則以爲 設壇於山下 置神板 只書某山之神 只行國祭 禁民間淫祀 以正人心 卿等悉稽封爵 立廟古制以聞.”

99) 『耽羅誌草本』 濟州(牧) 「壇廟, 漢拏山神廟, “在南城外二十里 舊無廟 行祭于山頂 人多凍死 牧使 李約東時創建于此.”

기 때문이지만, 얼어 죽은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제사를 지낸 사람은 관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추정된다. 『增補文獻備考』를 보면, 1703년(숙종 29) 한라산이 국사 사전에 편입된 경위를 기록하면서 아래와 같이 별도로 이희태 목사의 말을 적고 있다.

濟州牧使 李喜泰가 아뢰기를, “한라산은 다른 산과 달라 9월부터 눈이 쌓이는데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게 되면, 부득이 산허리의 눈이 적은 精潔한 곳에서 제사를 행합니다.” 하였다.<sup>100)</sup>

위의 기사에 나타난 祭場은,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아 산 아래로 옮긴 곳이 아니라 눈이 많이 쌓여 부득이 산허리에 임시로 마련한 곳이다. 산 중간에서 제사를 지낸 기록은 『증보탐라지』<sup>101)</sup>와, 1601년 김상헌과 함께 한라산신제에 따라갔던 제주목 사람들이 날이 저물고 기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만류하며 (불레오름) 존자암 뒤편에 壇을 만들어 제사지내기를 청한데에서도 알 수 있다.<sup>102)</sup> 즉, 한

100) 『增補文獻備考』, 권61, 禮考8 諸壇1 嶽海濱山川 朝鮮, “……二十九年 禮曹判書 閔鎮厚言 漢拏山以海外名山 獨漏祀典 命議大臣 領議政 申琬議州縣名山大川 皆載祀祭 漢拏山獨漏 禮曹啓 所謂五禮儀未成之前 耽羅未順之時 故因此落漏者 似然 追載祀典恐無所妨 領中樞府事 尹趾完議 漢拏山不入於祀典 本州啓本 所謂五禮儀纂成時 本州乍順乍逆者 非考證之言 無亦以海外區別不同內服而然耶 國典所無 今難册行 而第本州事體 與諸道州郡有異 若令本州春秋享祀 如諸候祭封內山川之禮 則似或無妨 教曰 漢拏山以海外名山 獨不入於祀典 未免欠闕 依領相議施行 濟州牧使 李喜泰啓言 漢拏山異於他山 自九月積雪 人不通行 不得已 山腰雪殘精潔處設行.”

101) 『增補耽羅誌』 濟州(牧) 「祠廟」 [增]小林祠, “祭漢拏山神祠 在山下州南十六里 漢拏山初無祀典 …… 肅廟 壬午 牧使 李衡祥具由啓文 每年 正月二月 秋八月 香祝下來享祀 初則祭於白鹿潭 若雪深不得上 則祭於中山 其後建祠於小林果園中.”

102) 『南槎錄』 권2, 9월 24일 戊午條, “州人等齊告曰 今日 日勢已晚 此距山頂 尙四十餘里 行路極險 況此山雖精明 無點雲之日 若人馬喧乎踐踏 則山神必累日下雨

라산 정상에서 민간에 의해 치제되었던 산신제는 세종대 금지되어 산 아래쪽에 제장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 소재관 행제의 법식에 따라 또는 임시의 祭壇으로서 1437년 경 불레오름에 단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산천단묘의 정비와 영실존자암과는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 이 부분은 세종대 旱災를 극복하기 위해 각 처에서 행해진 禱雨(祈雨)행사에서 찾을 수 있다. 세종은 즉위 초부터 해마다 발생한 旱災로 인해, 불교의 세속권을 정비하고 佛事를 제한하면서도(한우근, 1997: 184-188쪽) 태종대<sup>103)</sup>와 마찬가지로 절과 승려로 하여금 비가 오도록 빌게 하였다.<sup>104)</sup> 아울러 국가 사전에 편입된 곳뿐만 아니라 영험은 있

---

以洗之 況則有雨徵 陟彼之後 四無依庇 如逢風雨晦迷 進退維谷 決不可前去 須於寺後 除滌淨地 爲壇以祭 余不聽遂行。”

- 103) 『太宗實錄』 권4, 太宗 2年 7月 癸未條, “僧徒于演福寺禱雨”; 『太宗實錄』 권12, 太宗 6年 閏 7月 癸亥條, “有僧名長願心者…… 壬戌之夜 祈雨於興天寺舍利殿 適是夜雨 上聞而嘉之”; 『太宗實錄』 권26, 太宗 13年 7月 壬午條, “聚僧一百于興天寺舍利塔 以曹溪宗判事尙形 奉香禱雨”; 『太宗實錄』 권36, 太宗 18年 7月 己酉條, “聚僧徒於興福演福寺…… 設祈雨精勤”, 절에서 비를 빌게 한 경우[『太宗實錄』 권5, 太宗 3年 4月 癸酉條, “命文可學 清齋于松林寺禱雨”; 『太宗實錄』 권9, 太宗 5年 5月 壬寅條, “設禱雨精勤于演福寺”; 『太宗實錄』 권31, 太宗 16年 5月 丁未條, “遣西川君韓尙敬 禱雨于興福寺 聚持戒僧徒一百 誦大雲輪請雨經”; 『太宗實錄』 권31, 太宗 16年 6月 甲子條, “命判左軍都摠制府事崔逸 祈雨於興天寺舍利殿…… 聚僧一百 設祈雨精勤”, 승려와 무당을 모아 비를 빌게 한 경우[『太宗實錄』 권9, 太宗 5年 4月 甲午條; 『太宗實錄』 권19, 太宗 10年 6月 己未條].
- 104) 『世宗實錄』 권4, 世宗 1年 5月 癸酉條, “命各宗僧徒禱于興福寺”; 『世宗實錄』 권4, 世宗 1年 6月 乙亥條, “雲牛請依 大雲輪經 再與僧一七員至七日祈禱 上曰……不允”; 『世宗實錄』 권16, 世宗 4年 7月 己未條, “禮曹啓 旱氣方熾 禾苗枯槁 請令僧巫祈雨”; 『世宗實錄』 권20, 世宗 5年 5月 癸未條, “禮曹據開城留後司關啓 今旱甚 禾穀焦枯 請令司內僧徒 巫女祈雨”; 『世宗實錄』 권28, 世宗 7年 6月 癸亥條, “行祈雨太一醮于昭格殿 祈雨精勤于興天寺”; 『世宗實錄』 권29, 7年 7月 己巳條, “命禪教兩宗及明通寺禱雨 限以得雨”; 『世宗實錄』 권29, 世宗 7年 7月 癸酉條, “禮曹啓 今祈雨 靡神不舉 雨澤不降, 誠爲可慮…… 請京中及畿內僧徒 巫女祈禱 家人戶祠里社聚祈等事 更擇吉 一日一時爲始 三日爲限祈雨 仍令所在官司考察 從之”; 『世宗實錄』 권29, 世宗 7年 7月 甲午條, “始於京中及畿內,

令僧徒巫女祈雨”；『世宗實錄』 권32, 世宗 8年 4月 丙戌條, “聚僧徒祈雨于興天寺”；『世宗實錄』 권32, 世宗 8年 4月 庚寅條, “盲人等會于明通寺祈雨” 『世宗實錄』 권32, 世宗 8年 5月 戊午條, “賜明通寺祈雨盲人米三十石”；『世宗實錄』 권36, 世宗 9年 5月 丙辰條, “禱雨于社稷 又聚童子於廣延樓下 聚僧徒於興天寺 聚巫女於興仁門外 禱雨”；『世宗實錄』 권36, 世宗 9年 6月 丁丑條, “聚僧于興天寺 聚巫于漢江祈雨 盲人等自會明通寺祈雨”；『世宗實錄』 권36, 世宗 9年 6月 己卯條, “命停各處祈雨 祈雨僧徒賜布有差”；『世宗實錄』 권36, 世宗 9年 6月 癸未條, “賜明通寺祈雨盲人等米三十石”；『世宗實錄』 권37, 世宗 9年 7月 丁酉條, “祈雨于興天寺 明通寺”；『世宗實錄』 권45, 世宗 11年 7月 戊申條, “聚僧徒禱雨于興天寺”；『世宗實錄』 권68, 世宗 17年 5月 戊戌條, “聚禪教兩宗僧徒, 祈雨于興天寺”；『世宗實錄』 권69, 世宗 17年 7月 甲午條, “行蜥蜴祈雨 聚巫女僧徒祈雨”；『世宗實錄』 권69, 世宗 17년 8월 乙巳條, “行東方青龍祈雨祭 又行僧巫蜥蜴等祈雨”；『世宗實錄』 권72, 世宗 18年 4月 己未條, “聚巫僧徒祈雨”；『世宗實錄』 권72, 世宗 18年 6月 丁酉條, “蜥蜴祈雨童男及明通寺祈雨盲人 並賜米有差”；『世宗實錄』 권72, 世宗 18年 6月 辛丑條, “聚巫僧徒祈雨”；『世宗實錄』 권73, 世宗 18年 閏 6月 戊辰條, “聚巫僧徒祈雨”；『世宗實錄』 권74, 世宗 18年 7月 甲午條, “祈雨于社稷 又行僧巫及蜥蜴祈雨”；『世宗實錄』 권86, 世宗 21年 7月 癸丑條, “行僧徒聚巫蜥蜴祈雨”；『世宗實錄』 권74, 世宗 18年 7月 庚戌條, “祈雨于零祀 又行僧巫蜥蜴祈雨”；『世宗實錄』 권89, 世宗 22年 4月 丁酉條, “行蜥蜴, 聚巫僧徒祈雨”；『世宗實錄』 권100, 世宗 25年 4月 癸丑條, “行聚巫僧徒, 蜥蜴祈雨”；『世宗實錄』 권100, 世宗 25年 6月 壬子條, “禱雨于零祀風雲雷雨三角 白岳 木覓 漢江 又行聚巫僧徒 蜥蜴祈雨”；『世宗實錄』 권101, 世宗 25年 7月 己未條, “禮曹啓 近日旱災可畏 請於興德藏義 僧伽 開慶 檜巖等寺 令僧徒限得雨祈禱”；『世宗實錄』 권101, 世宗 25年 7月 戊辰條, “祈雨于社稷零祀風雲雷雨北郊諸山川三角 白岳 漢江 木覓 行蜥蜴僧徒祈雨”；『世宗實錄』 권101, 世宗 25年 7月 癸酉條, “行北方黑龍祈雨祭 又行蜥蜴僧徒祈雨”；『世宗實錄』 권104, 世宗 26年 6月 丁未條, “行聚巫僧徒蜥蜴祈雨 沈虎頭于漢江 朴淵 楊津”；『世宗實錄』 권105, 世宗 26年 7月 壬申條, “聚僧徒祈雨于藏義寺”；『世宗實錄』 권108, 世宗 27年 5月 壬午條, “聚巫僧徒蜥蜴祈雨”；『世宗實錄』 권120, 世宗 30年 5月 乙酉條, “禮曹啓 請聚巫僧禱雨 徙市 祭五方土龍 令京城各戶祀門 從之”；『世宗實錄』 권124, 世宗 31年 5月 丁未條, “上謂承政院曰 興天寺祈雨精勤 不爲則已 爲則必盡誠敬”；『世宗實錄』 권124, 世宗 31年 6月 辛亥條, “禮曹啓 今旱氣太甚 請更祈于北郊 社稷……又行僧徒蜥蜴 聚巫祈雨”；『世宗實錄』 권124, 世宗 31年 6月 癸丑條, “命崇德大夫李正寧 祈雨于興天寺”；『世宗實錄』 권124, 世宗 31年 6月 丙辰條, “停諸處祈雨……興天寺祈雨僧百四十人 布物有差”；『世宗實錄』 권124, 世宗 31年 6月 丁巳條, “傳旨禮曹 僧徒祈雨後 若得雨 則設齋報供 以爲恒式”；『世宗實錄』 권124, 世宗 31年 6월 己未條, “監察河淳敬以興天祈雨禮佛 知其違禮 請避嫌 命

지만 사전에 오르지 못한 명산대천에서도 비가 오도록 빌게 한다.<sup>105)</sup> 태종대에도 구름과 비를 일으킬 수 있는 명산대천에 소재관을 파견하여 기도하게 하지는 논의가 있었지만,<sup>106)</sup> 세종대처럼 영험이 있는 곳을 적

就職”；『世宗實錄』 권124, 世宗 31年 6月 壬戌條, “司憲府啓 臣等聞近日行報供齋 其他報賽祭 待秋而後行之……臣等意謂褻瀆 請令勿行”；『世宗實錄』 권124, 世宗 31年 6月 甲子條, “司諫院啓 宗廟 社稷 山川 並行祈雨 而報祀尙未行 先行興天寺 實爲不可……(不允) 集賢殿直提學辛頌祖等啓……請罷淳敬 停報供齋…(不報) 集賢殿上書曰……今報供未罷 而禱雨又作 災且未弭 則亦何異於是哉……(不允)”；『世宗實錄』 권 124, 世宗 31年 6月 戊辰條, “傳旨司憲府 自今僧徒祈雨 監察隨他拜佛 以爲恒式”；『世宗實錄』 권125, 世宗 31年 7月 己卯條, “命首陽大君瑠 都承旨李思哲 祈雨于興天寺”(『世宗實錄』과 한우근(1997), 『유교정치와 불교』, 일조각, 152~153쪽을 참조하여 작성함).

105) 『世宗實錄』 권4, 世宗 1年 5月 庚午條, “上命禮曹 今祈雨 雖祀典所不載 在前所祈處 並皆舉行”；『世宗實錄』 권29, 世宗 7年 7月 己巳條, “乞依古制 祀典詳定時 汰去各道山川城隍及諸神祠 令所在官致祭祈禱”；『世宗實錄』 권33, 世宗 8年 7月 丙申條, “禮曹啓 祀典所載外 各道山川神祠祈雨後 報祀祭 令其官行之從之”；『世宗實錄』 권36, 世宗 9年 6月 丁卯條, “行南方土龍祈雨祭 命各道名山大川城隍諸神祠 雖祀典不載 亦行祭禱雨”；『世宗實錄』 권43, 世宗 11年 1月 己未條, “禮曹判書申商啓 開國以來 祀典所載祀神之處 今皆復立 則其數過多 故移文各道 訪其靈異之所 則無一不靈異 雖非降香祝致祭 其邑守令 亦皆致祭 或以國庫 或以位田 或以官中 供其祭具 其例不一 乞皆以國庫米穀供之何如 上曰 祀典沿革 未知可沿可革之由 然既皆致祭 則雖不降香祝 亦非不祭也 凡其致祭處 皆以國庫供之可也”；『世宗實錄』 권68, 世宗 17年 5月 乙未條, “禮曹啓 降香祝祈雨于岳 海濱 名山 大川 又令各道祀典不載山川城隍諸神祀 並行祈禱 從之”；『世宗實錄』 권69, 世宗 17年 7月 壬申條, “禮曹啓 祀典所載外 各道各官山川城隍諸神祀祈雨後報祀祭 令所在官擇吉行事 從之”；『世宗實錄』 권101, 世宗 25年 7月 己未條, “禮曹啓 近日旱災可畏……且有旱氣各道則祀典外靈驗山川 亦令致祭”；『世宗實錄』 권108, 世宗 27年 5月 己卯條, “議政府據禮曹呈啓 往年秋旱 今年亦旱 將來可慮……且各道祀典所載外 靈驗山川 亦令所在官致祭祈禱”；『世宗實錄』 권124, 世宗 31年 6月 辛亥條, “禮曹啓 今旱氣太甚 請更祈于北郊 社稷宗廟 風雲雷雨……開城府及各道祀典所載岳海濱名山大川及祀典所載外靈驗處 盡誠以祈 從之”

106) 『太宗實錄』 권31, 太宗 16年 5月 乙巳條, “命議政府 六曹 臺諫 講求救旱之策 以聞 卽日上便民七事……其七 名山大川能興雲雨處 令所在官精誠祈禱 卽下禮曹 布告中外”

극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세종은 즉위 초부터 사전에 실려 있지 않지만 이전부터 기우를 행한 곳에서도 기우제를 거행하라고 하였고,<sup>107)</sup> 예조의 건의에 따라 사전의 상징 때 빠져 있는 산천 성황 및 여러 신사에도 소재관을 보내 치제하고 기도하게 한다.<sup>108)</sup> 그러나 開國한 이래 사전에 실려 있는 곳이 너무 많은 점이 문제가 된다. 1429년(세종 11) 1월 예조판서 申商은 다음과 같이 건의하여

“개국한 이래 사전에 실려 있는 대로 신에게 제사하던 곳을 이제 다시 모두 제사한다면 그 수요가 너무 많은 까닭에, 각 도에 移文하여 영험이 있는 곳을 물었더니, 영험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비록 (조정에서) 향축을 내려서 치제하지 않더라도, 각 읍 수령이 치제를 하는데, 國庫로 하거나 혹은 位田으로 하며, 혹은 관에서 祭具를 공급하는 등 그 예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모두 國庫의 米穀으로 공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sup>109)</sup>

영험이 있는 곳을 가리고자 하였으나, 각 도에서 모두 영험이 있다고 하여, 일관되지 않은 치제의 예만 모두 국고의 미곡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이 해 11월 예조는 영험여부는 분별하지 말고, 영구히 혁파되었거나 제사하는 장소를 모르는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에서 행하는 岳瀆山川의 祭品の 例에 따라 국고의 미곡으로 치제하게 하고, 제사 뒤에 監司

107) 『世宗實錄』 권4, 世宗 1年 5月 庚午條.

108) 『世宗實錄』 권29, 世宗 7年 7月 己巳條.

109) 『世宗實錄』 권43, 世宗 11年 1月 己未條, “禮曹判書申商啓 開國以來 祀典所載 祀神之處, 今皆復立 則其數過多 故移文各道 訪其靈異之所 則無一不靈異 雖非 降香祝致祭 其邑守令 亦皆致祭 或以國庫 或以位田 或以官中 供其祭具 其例不一 乞皆以國庫米穀供之何如 上曰 祀典沿革 未知可沿可革之由 然既皆致祭 則雖 不降香祝 亦非不祭也 凡其致祭處 皆以國庫供之可也.”

가 예조에 移文하는 것으로 恆式을 삼기를 청하였다.<sup>110)</sup> 이때 한라산이 영험이 있는 致祭所로 포함되어 세종대에는 국고의 미곡으로 치제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111)</sup> 그런데 홍유손의 「존자암개구유인문」(1507)에는, 나라에서 하사받은 토지로 삼 읍의 수령이 영실존자암에서 지냈던 國聖齋에 대한 기록이 아래와 같이 있어 참고가 된다.

……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이 암자에) 天水畚[甕]을 하사하여 벼를 심어 齋지낼 곡식[黍]으로 삼게 하고, 음력 4월[首夏]에 吉日을 점쳐서 세 읍의 수령[遊頭] 중 하나를 뽑은 다음 목욕재계하여 이 암자에서 제사 지내게 하였다. 이를 國聖齋라 하였는데, 지금은 폐지된 지 근 6~7년이 된다.  
112)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祭場은 영실존자암이지만, 致祭는 세 읍의 수령이 하고 있는 점이다. 즉 국성재는 예조판서 신상이 언급한 것처럼 기우의 영험처로 인정되어, 당시 제주의 사정에 맞게 位田을 마련하고 4월에 吉日을 택하여 한라산신에게 지냈던 제사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110) 『世宗實錄』 권46, 世宗 11年 11月 癸丑條.

111) 各道山川壇廟巡審別監의 파견은 단유체제의 정비 뿐만 아니라 영험성의 여부 파악에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영험성이 없는 谷山郡의 南山과 彌勒山, 그리고 여러 섬들에 致祭하는 것은 국가의 奠物만 허비하는 것이라 하여 혁파하였다(『世宗實錄』, 권49, 世宗 12年 8月 甲戌條).

112) 『篠叢遺稿』上文「尊者庵改構脩因文」在濟州, “……況夫邦賜其甕 俾種其稻以爲齋黍 而於首夏之月 卜得吉日 爲差三邑遊頭中一員 齋沐行祀於是庵 謂之國聖齋 今其廢也 纔六七年矣”.

李圭景은 김치의 「유한라산기」를 인용하며 「尊者庵上樑文」으로 기록하고 있다 “游漢挈記 己酉孟春 以天官郎 ……踰嶺入三長洞 由三長越浦涯嶽 迤邐而南到一精舍 高在煙霞 下壓滄溟 卽尊者庵 板屋八九間 蓋以草茅 有一僧修淨迎焉 尊者庵上樑文 洪篠叢製之 見篠叢集 可考.”(『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地理類 山 漢挈山辨證說).

그 명칭이 ‘齋’로 된 것은 祭場이 영실존자암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당시까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施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의현 大族들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sup>113)</sup> 왜냐하면 제주의 토 관세력은 1445년 도지관의 혁파와 인신 회수 등의 조치에 의해<sup>114)</sup> 영향력이 약화되었음에도, 軍職을 중심으로 다시 결합하며 16세기 후반까지도 수령과 지배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었기 때문이다(김동전, 1991: 17-18쪽).

세종대 순심별감의 파견을 통한 영험성 파악, 그리고 사전에 오르지 못한 명산대천과 사찰·승려에 의한 禱雨 또는 祈雨 행사는 영실존자암이 한라산의 영험성과 관련된 주요 禱雨(祈雨) 祭場이었음을 추측케 한다. 즉 한라산 西嶺에 있던 영실존자암은 기우의 영험처이자 정의현 大族의 신앙처로서, 그리고 한라산신제의 祭場으로 존재하다가 세종대 음사의 제한과 산천단묘의 정비과정에서 정의현 대족들에 의해 불례오름으로 이권된 듯하다.

## 2. 17세기 중·후반 제주지역의 재난과 민간의 대응

앞서 언급한 국성재가 폐지된 때는, 홍유손이 유배왔던 1498년(연산군 4)과 「존자암개구유인문」을 지었던 1507년을 기준으로 6~7년 전이므로, 1491년~1500년 사이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정의현 관아터에서 출토된

113) 조선 초기 지방의 경대부, 즉 지방의 전·현직관리들을 지칭하는 재지품관들은 지방의 士族으로서 산천제를 지내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국가와 이들과의 타협은 지방관이 국왕을 대표하여 지내는 산천제와 지방사회에서 봉행하는 산천제가 공존하는 요인이 되었다(최선희(2003), 「조선전기 지방의 산천제와 재지품관, 『민속학연구』 제13호, 국립민속박물관, 299-306쪽). 제주도의 경우 이들 재지품관을 토관으로 볼 수 있다.

114) 『世宗實錄』 권 108, 世宗 27年 6月 辛酉條.

‘계축년’명문기와의 추정연대(1433, 1493)와도(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148쪽) 어느 정도 일치하는 때이다. 아울러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남명소승』의 기록년대를 감안하면 불레오름으로의 이전은 1530년~1580년 사이에 추진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불레오름 존자암의 탐지로 추정되는 유구에서 출토된 “[?]二月修正禪師大夫金冲光”명문 기와와 비각지로 추정된 壇의 규모, 정의현 관아터에서 출토된 ‘계축년’명문기와를 고려하면 건립 시기는 1383년~1433년경으로도 추정된다. 따라서 불레오름 존자암은 1383년~1433년과 1530년~1580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로서는 어느 시기가 맞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건립 시기를 1383년~1433년 사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정의현 大族의 존자암 건립에 따른 시주 가능성이 있다. 즉 이들이 정의현 객사의 중건에 참여했던 1433년은, 1445년 도지관이 혁파되고 그 일부가 군직의 일부로 편입되는 1469년(예종 1)<sup>115)</sup>의 상황보다 나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비각지로 추정된 壇의 축조시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조오례의』가 편찬된 1474년 이후보다는, 1424년 세종이 단을 산 아래로 옮겨 음사를 금지하고 단유체제를 정비해 나가던 1426년~1437년 사이 소재관의 행제의 법식에 따라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불레오름의 존자암이 건립되던 1383년부터, 1580년 사이 존자암은 영실과 불레오름 2곳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영실존자암이 폐사되던 1530~1580년 이전에, 불레오름에 존자암이 완공되어 이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다.<sup>116)</sup>

115) 『睿宗實錄』, 권3, 睿宗 1年 2月 甲寅條, “行通禮院引儀高澤上書曰……一, 本州四面受敵 防禦最緊 軍卒竝皆門前防禦 且耕且戍 非諸道番上之例 故州東之朝天館 金寧西之都近川 涯月 明月 大靜縣之遮歸 東海 旌義縣之西歸 水山等八處 害之地 置防護所 其傍近有職解事者 土官上副千戶 百戶 其餘丁皆作正軍 各給奉足 多少有差 令土官統之 輪番防禦 且籍土官 正軍 奉足 稱爲雜色軍.”

17세기 중반 불레오름에 있던 존자암이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진 이후 발생한 경신대기근(1670~1671)과 을병대기근(1695~99)은 육지는 물론 제주도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sup>117)</sup> 특히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확산은 정의현 사람들이 (영실)존자암을 중수하려는 動因이 되고 있었다.

旌義縣의 大族들이, 惡疾에 많이 걸린 것이…【缺】…이 암자를 폐한 뒤부터이고, 비바람이 때때로 어긋나 흉년이 드는 것도 이 암자를 重修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여, 富豪와 관가의 관원으로부터 논밭을 기는 사내와

116) 아래의 표와 명문기와의 출토지만 놓고 보면, 불레오름 존자암의 주요 건물인 금당지와 법당지는, 14~15세기에 건립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영실존자암이 폐사된 시기에 중건 또는 완료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영실존자암과 불레오름 존자암이 서로 양립했던 것이 아니라, 영실에 존자암이 있을 때, 불레오름에 존자암을 짓기 시작하여, 영실존자암이 폐사될 무렵 완공되었을 것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시기구분	소속시기	제1단 석축대지	제2단 석축대지	제3단 석축대지	제4단 석축대지
1차시기 建物址	고려말-조선초 (14~15세기)	제1단 石築施設 N-S Tr. (1)-(3) 내부 穢石施設 塔址推定址	건물지(3) ※ 金堂址추정 건물지(4)	건물지(5) ※ 산신각 추정	浮屠址
2차시기 建物址	조선 중기 (16~17세기)	건물지(1) ※ 선방지 (法堂址)추정	건물지(2) ※ 金堂址추정 數石施設	碑閣址 (祭壇址)	

※ 표시는 필자 註: 제주대학교 박물관·제주도(1996), 『尊者庵址』, 41~48쪽과 167쪽을 참고하여 작성 / ㉔㉕二月修正禪師大夫金沖光' 명문기와: 답지추정지에서 출토, '天孔開啓' 명문기와: 건물지(5) 또는 비각지에서 출토(73쪽, 160쪽)

※ 표는 제주대학교 박물관·제주도(1996), 『尊者庵地』

위의 표와 명문기와의 출토지만 놓고 보면, 불레오름 존자암의 주요 건물인 금당지와 법당지는, 14~15세기에 건립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영실존자암이 폐사된 시기에 중건 또는 완료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영실존자암과 불레오름 존자암이 서로 양립했던 것이 아니라, 영실에 존자암이 있을 때, 불레오름에 존자암을 짓기 시작하여, 영실존자암이 폐사될 무렵 완공되었을 것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117) 아래의 표를 보면 17세기에 자연재해가 가장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물을 길는 아낙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늙은이와 樵童·牧童들 까지도 모두 절을 重修하자고 입을 모아 하소연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비록 이러한간 했으나 한갓 중수해야겠다는 마음만 있을 뿐 재물과 곡식을 시주할 사람은 열에 한 두 명, 백에 7~8명에 불과하였기에, 공사의 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를 헤아려 보고 망설이며 계획만 생각해 온 지가 여러 해 되었다.118)

시기	해당 연도(세기)		大風		水災		旱災		때아닌 눈비	
	전국	제주	전국	제주(風異)	전국	제주(雨異)	전국	제주(旱異)	전국	제주(雪異)
1 기	1392~1450	15세기	137	6	98	3	73	2	41	2
2 기	1451~1500		99		51		64		22	
3 기	1501~1550	16세기	120	5	237	5	16	4	84	
4 기	1551~1600		63		106		39		43	
5 기	1601~1650	17세기	119	19	168	13	177	8	49	6
6 기	1651~1700		114		216		111		119	
7 기	1701~1750	18세기	103	12	77	5	44	6	65	
8 기	1751~1800		7		27		8		8	
9 기	1801~1863	18세기	8	2	82	4	4	3	1	2
합계			770	44	1,062	30	536	23	432	10

※ 전국은 이태진(1996), 『小水期(1500~1750년)의 천재 현상적 원인』, 『국사관논총』 제72집, 국사편찬위원회, 97쪽의 <표 3> 『조선왕조실록』 천변지이 관련 기록들의 시기별 분포상황 가운데 대풍, 수재, 한재, 때아닌 눈비를 재인용.

※ 제주는 김오진(2008),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상재해와 관민(官民)의 대응 양상』,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6호, 대한지리학회, 861쪽의 <표 1> 제주도 기상특이일 기록 건수의 시기별 분포를 재인용.

118) 『篠叢遺稿』上文「尊者庵改構侑因文」在濟州, “……旌縣大族 惡疾多【缺】由庵之既廢矣 風雨時乖 年穀或歉 因庵之不修矣 自其閭右之豪 公門之官 以至于耒鋤之夫 井臼之婦 與其杖卷之耆耆 樵牧之童兒 莫不相感告語 而欲其重修 雖舉禁法而示之止之 其心逾奮而未之能遏也 雖然 徒有其心而出財粟爲檀越者 十而一二 百而七八而止 計其土木工費之可支 而猶豫商略者 凡幾年矣乎.”

즉 정의현 사람들은 (영실)존자암을 폐하면서 정의현 大族들이 惡疾에 걸리고, 또 중수하지 않아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하여 (영실)존자암의 중수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존자암을 통해 자연재해와 전염병을 극복하려는 염원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1500년경 국성재의 폐지는 한라산의 영험성을 대표하던 영실존자암의 위상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한라산신은 水災·旱災·疾疫 등의 재앙을 미리 막아주어 곡식을 두루 자라게 하고 畜産을 번성케 하며,<sup>119)</sup> 또 재앙이 일어났을 때 기도를 하면 도와주는 신이었다.<sup>120)</sup> 한라산의 영험성을 비유한 것이 한라산신의 권능일 것이다. 영실존자암은 이러한 한라산신을 위한 祭場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폐하자 惡疾에 걸리고, 重修하지 않아 旱災를 당했다고 정의현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즉 국성재의 폐지로 인해 정의현 사람들은 한라산신에 의지할 수 있는 또 다른 祭場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것이 불레오름으로 옮겨간 주요 動因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한라산신을 위한 제장인데 민간신앙으로써의 山神廟와 廣壤堂, 순무(안핵)어사 등이 치제했던 백록담 기우단, 존자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국성재의 쇠퇴와 연관지을 수 있는 것이 민간의 산신묘이며, 『증보탐라지』·이원진의 『탐라지초본』·金錫翼의 『耽羅紀年』 등에서 그 존재양상을 살필 수 있다.

소림사 : 한라산신에게 제사하는 사당이다. 산 아래 州 남쪽 16리에 있다.

119) 『南槎錄』 권2, 9月 25日 己未條 「漢拏山祭文」, “國王遣成均館典籍金尙憲 致祭于漢拏山之神 …… 假天神柄 佑我民斯 疾疫無災 風雨以時 禾麻敵暢 畜産蕃滋 邑以之寧 邦用是資.”

120) 『南槎日錄』, 庚申(1680) 3月 20日 己酉條 「漢拏山祭文」, “國王謹遣臣副司直李增 致告于漢拏山之神 …… 南服攸宗 水旱疾疫 有禱必獲 功施斯洽 民受厥福.”

한라산은 처음에 祀典에 등재되지 못하여 사직단 아래의 단에서 산천·성황신에게 별도로 제사를 드렸다. 만력 신축년(1601) 어사 김상현이 내려왔을 때 특별히 명을 받아 設祭하였다. …… 숙묘 임오년(1702) 목사 이형상이 (사전에 누락된 : 필자 주)사유를 갖추고 아뢰어 매년 정월·2월·秋 8월에 香祝이 내려와 享祀를 하였다. 처음에는 백록담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만약 눈이 많이 내려 부득이 정상에 오르지 못할 때에는 산 중간에서 제사를 지냈고 이후 소림과원에 사당을 건립하였다.<sup>121)</sup>

(『증보탐라지』, 영조 연간)

한라산신묘 : 南城밖 20리쯤에 있다. 예전에는 廟가 없었다. 한라산 정상에서 제사를 지냈으나 사람들이 많이 얼어 죽게 되어 목사 이약동 재임 시 (1470~1473; 필자 주)에 이곳에 창건하였다.<sup>122)</sup>

(『탐라지초본』, 1841)

성종 원년(1470) : 목사 이약동이 한라산신묘를 건립하였다. 이에 앞서 매년 한라산 정상에서 제사를 지냈으나 사람들이 많이 얼어 죽었다. 이때에 이르러 廟壇을 小山[소산봉?; 필자 주] 아래에 건립하였다. 【즉 산천단이다】<sup>123)</sup>

(『탐라기년』, 1918)

위 기사들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약동 목사 재임 시에 산 아래로 옮긴 山神廟壇의 성격이다. 즉 1703년 한라산이 소사에 편입되었기 때

121) 『增補耽羅誌』, 濟州(牧), 「祠廟」 [壇] 小林祠, “祭漢拏山神祠 在山下州南十六里 漢拏山初無祀典 山川城隍別祭於社稷下壇 萬曆 辛丑 御史 金尙憲下來時 特命設祭 祭文曰……○ 肅廟 壬午 牧使 李衡祥具由啓文 每年 正月二月 秋八月 香祝下來享祀 初則祭於白鹿潭 若雪深不得上則祭於中山 其後建祠於小林果園中.”

122) 『耽羅誌草本』, 濟州(牧) 「壇廟」 漢拏山神廟, “在南城外二十里 舊無廟 行祭于山頂 人多凍死 牧使 李約東時創建于此.”

123) 『耽羅紀年』 권2, “成宗元年 【明成化六年】 牧使李約東建漢拏山神廟 先是每祭于山頂 人多凍死 至是爲立廟壇於州南小山下 【即山川壇】 .”

문에 『증보탐라지』에서 언급된 소림사는 국행제의를 지내던 곳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탐라지초본』과 『탐라기년』에 언급된 이악동 목사가 건립한 한라산신묘는 소사에 편입되기 이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국행제의를 지내던 곳으로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이원조 목사가 국행으로 치제한 한라산신묘는 사전에 편입되기 이전에는 민간에서 치제하던 산신묘로서, 1703년을 기점으로 민간의 祭場에서 국행의 祭場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제주 판관을 역임했던 南九明의 「漢拏山祠重創記」(1714)이다. 이 글은 남구명이 1713년과 1714년 祭官으로 한라산에 갔을 때 廟宇의 퇴락이 심한 것을 보고 高尚元으로 하여금 중창하게 한 경위를 기록한 것이다.<sup>124)</sup> 남구명이 기록한 한라산사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악동 목사가 세운 한라산신묘를 중창했을 가능성은 있다.

즉 이악동 목사가 산 아래에 건립한 한라산신묘는 민간의 祭場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국성재의 기능과 영험성은 전보다 쇠퇴했을 것이다. 정의현 대족들은 영실존자암의 중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이와 같은 한라산신의 제장을 필요했을 것이고, 그곳은 세종대 음사의 제한과 산천단묘의 정비과정에서 축조된 단이 있는 불레오름이었을 것이다. 이곳으로의 이건은 이악동 목사가 한라산신묘를 창건한 1470년 초반부터 국성재가 폐지되는 1500년경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

124) 『寓庵集』 권3, 記「漢拏山祠重創記」, “癸巳春 余以祭官 進漢拏山 先審其廟宇 基地低濕 制度庫隘 四壁半爲風雨所傷 階上牛馬跡交錯 余瞿然而驚 凜然而悲……次年春 又以祭官進 椳桷朽折 倚卓有雨漏痕 淋漓生綠 視事既畢 余招諸生 議曰 此廟修改……邑子中誰可監董者 皆曰高生尙元 頗勤幹 余曰 余已識此人 事可屬 遂邀尙元……神室一間 稍從高大 以容執事周旋 四面承以小宇 以禦風雨 蓋以瓦 塗以蛤灰 內外皆鍊石密緻 東榮設小龕 以安香祝 外門一間 典祀廳一間 環以石牆 四隅方正可觀 庭除殖殖平寬 被以淺莎以備濕 齋室三間則仍其舊 易茅以瓦 倚子牀卓簾簾籩豆爵坩香燴及祭鼎 皆備而新之.”

을 것이다. 그리고 불레오름으로 존자암을 옮긴 후에도 정의현 사람들은 그들의 염원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증보탐라지』를 보면,

……【보】 불상 1구와 함께 섬들과 기와조각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 옆에 石瓮[필자 주: 존자암 부도로 추정됨]이 있는데 뚜껑을 흔들고 움직여 열어보고자 해도 열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 조각구름이 향아리 틈에서 일어나 잠깐 사이에 무수한 산봉우리를 모두 뒤덮고 구름을 일으켜 비를 내리게 하는데 縣 사람들이 유람객에 의한 폐해가 고통스러워 (石瓮을) 연못 속에 밀어 넣었다고 한다.<sup>125)</sup>

라고 되어 있어 현재 불레오름 존자암의 옛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石瓮의 기능이다. 석웅은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면 구름을 일으켜 비를 내리게 하는 영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이와 유사한 기록이 있는데 “(한라산) 꼭대기에 큰 못(백록담)이 있는데 사람이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서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sup>126)</sup>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온) 제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오늘은 날이 이미 늦었고 여기서 산 정상까지는 아직도 40여 리가 남았는데 가는 길이 매우 험합니다. 허물며 이 산은 비록 청명하여 구름 한 점 없는 날이라도 만약 人馬가 시끄럽게 떠들며 길을 가면 山神이 반드시 여러 날 비를 내려 (부정을) 씻어냅니다.<sup>127)</sup>(『남사록』, 1601)

125) 『增補耽羅誌』, 濟州(牧), 「佛宇 尊者庵, “旧在漢拏山瀛室 其洞有石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今移西麓外十里許 卽大靜境也【補】佛像一軀與階石瓦礫至今留在 其傍有石瓮其盖撓動而欲開不能 人喧其傍則片雲起於瓮間 斯須之間 羅盡千岑興雲作雨 縣人苦其遊客之弊 推下沒池云.”

12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濟州牧 山川條 漢拏山, “在州南二十里…… 其巔有大池 人喧則雲霧咫尺不辨.”

……산꼭대기에 못이 있는데 지름이 수백 보가 된다. 대정현을 거쳐 가면 험하고 좁은 산길 하나가 나오는데 나무들 사이를 따라 기어오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만약 (정상에서) 크게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사방을 가로막아 지척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sup>128)</sup>(『탐라지』, 1653)

위 기사들을 통해 한라산신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여 주위에서 누가 떠들면 구름과 안개로 사방을 막고 비를 내리는 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비를 내리게 하는 한라산신의 영험성을 민간에서 표현한 俗諺일 것이다. 그러므로 불레오름 존자암에 있는 부도는 바로 한라산의 영험성을 담은 신앙의 대상물로서, 산천신앙과 불교의 습합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정의현 사람들은 국성재가 쇠퇴하자 비를 내려주는 한라산신의 영험성을 부도에 부여하고 불레오름 존자암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17세기 후반의 흉년과 기근 상황에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당시의 재난은 17세기 소빙기적 기후 현상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자연재해·기근·전염병으로 이어지는 재난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급기야 경신대기근(1670~1671)이라는 가장 큰 재난이 발생한 때이다(김성우, 1997: 23-27쪽). 재난은 명백한 이상 저온현상 즉 냉해와 한파에 의한 것으로 특히 현종 원년(1660) 봄부터 그 이듬해 봄까지 지속되었다(김성우, 1997: 23쪽). 당시 제주의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7) 『南槎錄』 권2, 9月 24日 戊午條, “州人等齊告曰 今日 日勢已晚 此距山頂 尙四十餘里 行路極險 況此山雖晴明 無點雲之日 若人馬喧乎踐踏 則山神必累日下雨以洗之.”

128) 『耽羅志』, 濟州牧 山川 漢孛山, “……山巔有池 徑數百步 由大靜有一鳥道 人從樹間攀緣而上 若喧乎則雲霧四塞咫尺不辨.”

(1652년) 濟州의 旌義와 大靜에 태풍이 크게 불고 소나기가 사납게 내려서 말이 많이 죽고 백성들도 빠져 죽은 자가 있었는데, 糶전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sup>129)</sup>

(1654년) 제주에 큰바람이 불고 비가 왔다.<sup>130)</sup>

(1655년) 濟州에서 크게 눈이 내려 얼어 죽은 國馬가 모두 9백여 필이었다.<sup>131)</sup>

(1659년) 濟州島가 흉년으로 굶주리게 되어 전세의 절반을 감해 주고 錦城縣의 쌀 1천 석과 統營의租 2천 석을 옮겨 보내서 구휼하였다.<sup>132)</sup>

존자암이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가던 시기 제주도는 8년간(1652~1659) 태풍 → 한파 → 흉년으로 이어지는 큰 재난을 겪고 있었다. 당시 한라산신의 영험성은 제주 판관 남구명과 金繼重이 을병대기근(1695~1699)에 대해 나눈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계중이 말하기를 “금년(1713)에는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 백성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로부터 대정현 산방악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면 흉년이 들 조짐이라고 하였는데 금년 봄에는 두 번이나 나타났다고 합니다.……산방굴에서 동남쪽으로 십여 보쯤 되는 곳에 매우 큰 바위가 유달리 우뚝 솟아 있는데, 그 정상은 조금 평평하여 앉을 수 있습니다. 장차 홍수와 가뭄 그리고 비바람이 오려 하면 그 노인이 문득 나타납니다. …… 특히 부채를 흔들면 바람이 불 징조이고 흔들지 않으면 비가 내리거나, 가뭄이 들거나, 서리가 내리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황충해가 생기거나, 질병

129) 『孝宗實錄』 권9, 孝宗 3年 9月 壬辰條, “濟州旌義 大靜 颶風大作 驟雨暴下 馬畜多斃 人民亦有澆死者 命施恤典.”

130) 『孝宗實錄』 권13, 孝宗 5年 7月 庚子條, “濟州大風雨.”

131) 『孝宗實錄』 권14, 孝宗 6年 5月 丙戌條, “濟州大雪 國馬凍死 凡九百餘匹.”

132) 『孝宗實錄』 권21, 孝宗 10年 3月 乙未條, “濟州饑 減田租之半 移送錦城縣米一千石 統營租二千石 以賑之.”

이 도는데 그 징조가 틀림이 없이 착착 맞습니다.……혹자는 彌勒佛이라 하고 혹자는 漢挈仙人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山房岳神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물체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요 몇 해 사이의 일을 들어 말씀드리면, 경오년(1690) 봄에는 오랫동안 보였는데 7월에 황충해가 들고, 8월에는 바람이 불더니 마침내 대기근이 들었습니다. 갑술(1694)·병자년(1696)에도 나타났는데 이 두 해 모두 가뭄으로 대기근이 들었습니다. 기묘년(1699)에는 봄과 여름에 보였는데 이 해에 전염성 열병이 크게 들고 또 가뭄이 들어 죽은 자가 반이 넘었습니다. 임오년(1702) 과 을유년(1705)에 나타났을 때에는 큰 흉수가 났습니다. 정해년(1707)에 나타났을 때에는 가뭄과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축년(1709)에 나타났는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금년(1713)에 또 나타났더니 이전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몸이 덜덜 떨립니다.”

생각건대 한라산의 충만한 기운이 모여 神靈이 되어서는,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려 우리 島民에게 큰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혹 하늘의 큰 변동이나 기후에 관계되어, 힘으로 (재앙을) 막거나, (島民을) 비호할 수 없으면 문득 그 형상을 드러내어 島民들에게 일 년 중의 득실을 미리 알게 하여 生活의 計策을 세우게 한다. …… 이달(7월) 24일에 동북풍이 크게 일어났는데 …… 本州의 官廡와 民舍가운데 뒤집히고 떠내려간 것이 2,650여所였다. 民丁가운데 壓死한 자 5인이고, 壓傷한 자가 1인이었다. 公私의 소와 말 가운데 쓰러져 죽은 367頭였고, 닭과 개가 죽은 것이 58頭. 의복과 세간 그릇 가운데 떠내려가고 잃어버린 것은 헤아릴 수가 없다. 兩縣(대정·정의)에서 民家가운데 뒤집히고 무너진 것이 821戶였고<sup>133)</sup> 쓰러져 죽은 크고 작은 소와 말이 149頭였다. 8월 26일에는 큰 눈이 한 자(尺)넘게 내려 마침내 전에 없던 큰 죽음을 맞았으니 앞서 들었던 말이 과연 징험이 있었다.<sup>134)</sup>

133) 이형상의 『南宦博物』(1704)에 기록된 두 현의 총호수는 2,233戶(정약현 1, 436戶, 대정현 797戶)이므로 1713년 당시 두 현은 전체 호수의 1/3에 해당하는 民戶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南宦博物』誌地, “稍定喘息 倚石四望三邑……旌義在左翼之東 邑內一里 東面十里 西面十二里 合二十二里 烟戶一千百三十六戶 大靜在右翼之西 邑內一里 東面九里 西面二里 合十二里 烟戶七百九十七.”).

134) 『萬庵集』 권4, 雜著「物怪」, “繼重曰 今年雨澤不中 民情方惴惴 自古大靜縣山

위의 대화내용을 요약하면, 수재·한재·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려고 하면 彌勒佛·漢挈仙人·山房岳神 등으로 불리우는 어떤 노인이 산방악에서 나타나 미리 점지해주는데 과연 효험이 있다는 것이다.

남구명은 1713년 가뭄이 또다시 들자 이 노인을 한라산신으로 생각하고 백성들을 위해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즉 한라산신의 영험성은 경신·올병대기근을 거치면서 石翁을 벗어나 이제는 노인의 모습으로 대정현에 나타나고 있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정현 사람들은 한라산신의 영험성에 의지하여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레오름의 존자임을 대정현 지경으로 옮기려 했을 것이다. 반면 제주목에서는 대정현과 다르게 아래와 같이 재난 극복을 위해 廣壤神에 의지하고 있었다.

---

房岳 有老人見 其兆爲凶年 今春又再見云……余曰 其狀若何 曰 山房窟東南可十數步 有巨巖特立 其頂稍平可坐 歲將有水旱風雨 其人輒見頭戴白幘 制度如今朝祭所用梁冠樣……但搖扇則其微風 不搖則爲雨爲旱爲霜爲雹爲蝗爲疾疫 其微鑿鑿不差……余曰 異哉 是誠何物也 曰 或曰 彌勒佛 或曰 漢挈仙人 或曰 山房岳神 未知的是何物 而各隨所見 指作名字 依係恍惚 遠近異觀 以近歲言之 庚午春久見 七月蝗 八月風 遂大饑 甲戌丙子見 其年旱 皆大饑 己卯春夏見 其年大癘疫且旱 人死亡過半 壬午乙酉見 其年大水 丁亥見 其年旱且風 己丑見 其年旱 今年又見 推以前驗 其亦懷懷乎哉……意者漢挈磅礴之氣 結而爲神靈 興雲降雨 駿惠我島民 而或有天變所關 時氣所係 力不能捍禦庇護 則輒露其形 先告斯民 前知歲事之得失 預爲生活之計策 富者無費其貯 貧者拾橡於山 採毛於海 各自爲御窮計 節制使以下 至三邑佩印者 亦宜顧念神變 經理荒政 使一島老壯 不作翳桑之鬼 填壑之骨 則此翁之隱見 不可歸之於虛無渺茫之域 而視以爲尋常也決矣 亦不可比之於魑魅魍魎木怪水妖之屬 而指以爲凶徵也審矣 亦不可委之於適來適去乍起乍滅之變 而瞭然不講乎在人之道也的矣 既以是語金君 遂著說以志異 即癸巳五月日也……本月二十四日 東北風大作 狂雨挾至 初昏變作西南風 天地晦塞 海水羣飛 禾稼粉 大木顛拔 本州官廨民舍顛且漂者二千六百五十餘所 民丁壓死五人 壓傷一人 公私牛馬斃者三百六十七頭 雞犬死者五十八頭 衣服器皿漂且失者不可數 兩縣民家傾且圯者八百二十一戶 牛馬大小斃者一百四十九頭 八月二十六日大雪盈尺 遂爲無前大殺 前說果驗。”

오월 일 성안의老少 수백 명이 무리를 이루어 들어와 발을 여미고 말하기를, “백성들 마음에 지극한 바람이 있어 하소연 합니다…섬의 풍속이 三姓이래로 귀신을 높이 받들어 숭배해 왔는데, 城 남쪽에 있는 廣壤堂이 으뜸[朝宗]이 되고 三畝의 크고 작은 촌락도 각각 祠堂이 있습니다. 매번 歲時節일이 되면 징과 북을 울리고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깃대를 꾸민 깃발과 갑옷을 입힌 말로 지극히 위엄을 갖추어 鬼神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므로 해상에서 만나는 재해와 바다에서 침입하는 외적이 없어 백성이 많고 살림이 넉넉합니다. 한번 타파하고 불태워 버린 뒤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물 가물 서리 바람에 의한 재해가 없는 해가 없었는데, 지난해에 이르러서는 극심하였습니다.……얼마 전에 광양신이 그 女巫의 몸에 내려와 말하기를, ‘금년에도 나에게 제사를 하지 않으면, 장차 뇌우와 바람으로 島民을 모조리 죽인 다음 그치겠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겨우 큰 죽음을 넘겨 남은 자가 얼마 없는데, 금년에도 만약 거둬 흉년이 든다면 온 섬엔 진정으로 사람과 길짐승이 없을 것입니다. 청하건대 女巫의 말을 따라주십시오”……안타깝다. 이 섬의 풍속이 귀신을 좋아하는 것이 심하여 재산을 모두 기울여 파산하여도 돌아보고 아까워하는 것이 없다. 李仲玉(李衡祥)은 굳세고 바른 사람이다. 한 번의 명령으로 타파하여, 방탕하고 더러운 기운이 움츠러들게 하고 떨어버려 깨끗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풍속 교화에 공이 있었으나, 섬사람들의 미혹함을 아직 다 없애지는 못했다.……나의 말로써 너희들에게 辨明하려한다. 淫祠를 褻한 것이 임오년(1702)이었다. 그러나 임오년 이전에도 일찍이 경술년(1670)과 신해년(1671)에 흉년이 있었는데 광양신이 구원하지 못했다. 병인년(1686)과 을해년(1695)에 慘狀이 있었는데 광양신이 구원하지 못했다. 계속하여 을유년(1705)의 흉수와 기묘년(1699)의 전염성 열병과 기축년(1709)의 황충해를 광양신이 구원하지 못했다.……지난날에 영험이 없었던 것이 분명히 밝혀졌으니 앞으로 오는 일도 반드시 영험이 없을 것이다.……이른바 귀신이라 하는 것은 바른 것과 사악한 것이 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天地造化의 신이고 그 다음이 嶽瀆墳衍의 신이고, 그 다음이 社稷의 신이고 그 다음이 城隍의 신인데 모두 바른 신이므로 천자와 제후가 각각 제사드리는 祀典이 있다.……本州로 말

하자면,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는 한라산이 神權을 주장하기 때문에 聖上이 해마다 향축을 내려 제사지내게 한다. 三乙那는 죽어서 土神이 되어 土民을 비호하기 때문에 朝家에서 壇을 세우고 廟를 갖추어 보답한다. ……天地鬼神의 法命은 매우 엄격하여, 결코 의지할 데 없는 귀신이 비가 오고 날을 개이게 하는 권한을 훔쳐서 豊凶의 기미를 제멋대로 처단하여, 거만하게 자기 뜻대로 民間을 위력으로 억압하고 복을 내리게 하지 않는다.“<sup>135)</sup>

위의 글을 통해 보면 제주목의 광양신은 한라산신처럼 미리 재난을 알려주는 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島民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심지어는 제주민 모두를 죽이고자 했던 신이었다. 제주목 사람들 역시 광양당을 철폐한 후 10년 동안 온갖 재해를 겪었기 때문에 광양신의 영험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1713년 광양신이 또다시

135) 『萬庵集』 권4, 雜著「人妖」, “五月日 城中老少數百人 列隊而入 謾足以進曰 民情有至願 請訴 余曰 苟利於民 宜無所不從 第言之 多人加進而言曰 島俗自三姓以來 專尙鬼神 城南廣壤堂爲朝宗 三邑大小村各有祠 每歲時節日 鳴鐘鼓備酒食 旗旄甲馬 極其威儀以娛神 故海無風魚之災 民有富庶之盛 一自打破燒盡之後 于今十年 水旱風霜 無歲不災 至去年極矣。大訖里有女巫最靈異 與天神相問答 雜鬼無不聽命 卽者廣壤神降其身曰 今年若不祀我 將大雷雨以風 盡殲島民乃已 民等纔經大殺 靡有孑遺 今年若荐歎 一島必無噍類 請從女巫言……惜乎此島之俗 好鬼神甚 傾財破產 無所顧惜 李仲玉剛正人 一令打破 使淫穢之氣 靡然廓清 其有功於風教如此 島民之惑 猶未盡釋……太守有說 且與若屬辨 淫祠毀撤 蓋在於壬午 而壬午以前 嘗有庚戌辛亥之凶矣 廣壤神不能救 有丙寅乙亥之慘矣 廣壤神不能救 繼而有乙酉之水 己卯之癘 己丑之蝗矣 廣壤神不能救……不靈於前者 未有必靈於後 假令若屬復淫祠如初 無益只取損耳……若屬猶不信 其聽太守言 夫所謂鬼神者 有正有邪 最上天地造化之神 其次嶽瀆壇衍之神 又其次社稷 又其次城隍 此神之正者 天子諸侯各有祀典 其餘木石之妖 狐狸之怪 窮奇饕餮之屬 魑魅魍魎之輩 夜嘯晝伏 乍出乍沒 此鬼之邪者……以本州言之 漢孛山興雲降雨 主張神權 故聖上歲降香祝以祀焉 三乙那沒爲土神 庇護土民 故朝家備設壇廟以報焉 祭嘗祭於醕 土穀祭於社 無祀之神祭於厲 兵革之鬼祭於蠶 籩豆既潔 禮儀既備 ……法令甚嚴 決不使無賴之鬼 竊雨暘之權 擅豐凶之機 肆然行胸臆作威福於民間也。”

위협을 가하자 관아에 광양당의 중수를 하소연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주 판관 남구명은 광양신이 경신·을병대기근 동안 백성들을 구하지 못한 전례를 들어 광양당의 중수 요청을 거절한다. 또 남구명은 국행으로 제사를 지내는 신을 正神으로, 광양신 등을 邪神으로 규정하고 18세기 초반 재난을 만나 邪神에 의탁하려는 민심을 국행제의로 통합하여 바로잡으려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17세기 후반 제주지역의 재난은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와 후임 이희태 목사의 神堂復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남환박물』에 의하면, 1702년 이형상 목사 부임 당시 巫覡들은 堂漢이라 칭하며 흑세무민하고 민가의 牛馬와 논밭 등을 약탈하고 있었다. 이형상의 장계에 의해 폐단이 되었던 島民의 괴중한 役이 완화되자, 음식을 철폐하여 임금의 은혜를 기리기고자 한다. 이에 이형상은 광양당을 포함한 신당 129개소와 모든 神體 철폐하였고, 巫覡들도 면포 납부의 책임이 없어지게 되어 庶民으로 돌아가고자 했다.<sup>136)</sup> 앞서 남구명에게 을병대기근의 상황을 알려주었던 김계중의 말에 따르면, 1669년에는 전염병이 크게 창궐하였고 이형상이 부임하던 1702년에는 큰 흉수가 있었다. 즉 이형상 목사가 신당을 철폐할 당시 제주도는 을병대기근에서 아

136) 『南宦博物』誌俗 尙淫祀, “……又狀啓曰 巫覡輩惑誣之習 自是天下萬古所共有之痼弊 言亦無益…… 所謂男覡女巫 揚揚氣使 無賴之輩稱以堂漢 互相結契 其數過千 或討食於閭閻 或屠牛於神堂 村民之留綿布及絀段者 初以鬼崇懼之 若不出施則稱以鬼差 發逖堂漢結縛掠奪 甚至於奪其牛馬其數近百…其形勢不止惑世誣民而已…臣巡歷之時 三邑人民千百爲群 處處頌祝者 無非今番備局回啓中 變通惠澤也……自今爲始互相禁止 若其淫祀各各毀撤 以表其含恩戀德之忱至誠懇……果於翌日 各自燒火三邑所在神堂一百二十九處 及私家禱神之物 路傍叢林之處 巫覡輩神衣神鐵 一炬燒燼 甚至於掘木根毀佛像 今無一物留在三邑守令 連續牒報 又於翌日 巫男數百齊進呼訴曰 ……官用綿布全責於巫覡 赤手空拳無可備納 互相投巫展轉成俗 今既革罷此弊永絕 巫案置簿又爲除去 則世世相禁 人人各勵 永廢巫名 願爲凡民.”

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을 것이다. 여기에다 전염병의 창궐과 잇따른 자연재해는 제주민들로 하여금 더욱더 淫祀와 巫覡들에게 의지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당을 철폐한 이형상 목사는 淫祀에 의탁하여 재난과 전염병을 극복해왔던 제주민들에게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父老들이 요청한 유능한 審藥을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보내주어 전염병을 치료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형상 목사가 제주 삼읍에 천연두[痘疫]가 창궐했을 때 이전처럼 제주민들이 神床을 설치하지 않고 약을 복용했다고 하여 실효를 거둔 듯하다.<sup>137)</sup> 또 다른 대안은 한라산을 국가 사전에 오르게 한 것인데<sup>138)</sup> 이는 淫祀로서 광양당에서 치제하던 漢拏護國神의 제사를 국행제의로 대체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후임 이희태 목사가 醫生을 혁파하고 淫祠를 復設케 함으로써 이형상목사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sup>139)</sup> 이것은 10년 뒤에 제주판관으로 부임한 남구명의 ‘풍속 교화에 공이 있었으나, 섬사람들의 미혹함을 아직 다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말에서도 보인다.

137) 『南宦博物』誌俗 尚淫祀, “父老中稍有知識者 連續來告曰淫祀既已革罷 醫藥不可不勉 而本州審藥 每以不知藥名者 苟充差遣 願以此意啓達於朝廷 稍知醫理者 連續差送 則民心可固 積弊可除……今年痘疫遍滿三邑 而皆不設神床 人人服藥 此實前古所未有之異事.”

138) 『南宦博物』誌祠, “嶽海瀆之載於祈告祭典 名山大川之載於小祀者 亦有禮義漢拏山及大海 自是著稱於中土者 一依州縣名山大川之例 降香祝行事似舍事 宜考禮稟處如何……嶽海瀆及名山大川之載於小祀 亦如狀啓所陳 則本州漢拏山及大海 依名山大川之例 並行祀典亦似合宜 而漢拏山之行祀 亦係創始則俱難輕議……名山大川之載於小祀 既是典禮 故如雉岳紺岳之小小山 亦載於祀典 漢拏山以海外名山 著稱於中土 其表表非如雉岳紺岳之類 則揆以禮法 不當屈此伸彼 本州以海外別域 既不得聯絡內地 而凡施設自專 爲一方之中有 此中土稱之名山 則當初落漏於祀典 必有曲折.”; 『肅宗實錄』卷38, 肅宗 29年 7月 癸酉條.

139) 『南宦博物』誌俗 尚淫祀, “今聞 後至者到境 翌日大行神祠 又令巫輩速作神堂 且罷醫生 民皆膽落至有等狀請寢者 而猶不少緩.”

17세기 중·후반 발생했던 경신·을병대기근으로 제주도민들은 어느 때보다 민간신앙에 의탁하여 극복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17세기 중반 불레오름 존자암이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 한테에서 드러나고, 광양당이 철폐된 뒤에도 광양신에 의탁했던 제주목 사람들에게서도 보인다.

반면 국가에서는 지방수령을 중심으로 재난 극복 등을 위해 행해졌던 민간신앙을 국행제의로 통합해 가면서 음사를 억제하고 유교적 통치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러 祭場에서 행해졌던 한라산신에 대한 민간의 치제는, 한라산이 국가사전에 편입됨으로써 위축되고 10여년 뒤 남구명이 한라산신사를 중창함으로써 국행 한라산신제에 통합되어 이전보다 제의를 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3번에 걸친 존자암의 존폐는 불교억압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음사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존자암을 통해 평안과 안녕을 회구했던 정의현과 대정현 백성들의 요구였음이 분명해진다.

####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한라산에 있었던 존자암이 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이권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문헌기록을 통해 볼 때, 존자암은 영실→불레오름→대정현 지경 등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존자암이 이렇게 옮겨진 까닭을 세종대 음사의 제한과 산천단묘의 정비 그리고 17세기 중후반 제주지역의 재난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官의 대응 속에서 살펴보았다.

조선 초기 국가사전의 개편은 중앙집권화와 유교적 정치의 기반을 확

림이라는 명제 속에 불교를 포함한 전국의 민간신앙 祭場을 유교식 제의로 통합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즉 이러한 영향으로 한라산의 산천신앙과 습합된 영실존자암은 토관총(탐라 성주총)의 후원아래 존재하다가, 세종대 음사의 제한과 산천단묘의 정비과정에서 불레오름의 존자암으로 이견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불레오름 존자암의 부도와 비각지로 추정된 壇이다. 17세기 중후반 발생했던 경신·을병대기근으로 제주도민들은 어느 때보다 민간신앙에 의탁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존자암이 불레오름에서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았다, 반면 국가에서는 지방수령을 중심으로 재난 극복을 위한 민간신앙을 억제하고 국행제의로 통합하여 유교적 통치를 강화해 나가고자 했다. 한라산신사의 중창으로 대표되는 국행제이의 강화는 18세기 중후반 대정현 지경의 존자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 글은 문헌적 고찰이라는 한계 속에서 조선시대 존자암의 위치를 비정하고, 또 그 이견 사유를 밝혔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는 추후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1. 자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國朝五禮儀(영인본)』(1994), 민창문화사.

『增補文獻備考』

『增補耽羅誌』(日本 天理大 소장본)

『耽羅巡歷圖 南宦博物』(19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문헌편찬연구원(1983), 『邑誌』六 濟州道篇, 아세아문화사.

임제 저, 신호열·임형택 역주(1997), 『白湖全書』, 『南溟小乘』, 창작과비평사.

홍유손(1997), 『國譯 篠叢遺稿』, 소총유고국역간행위원회.

김상헌(1998), 『南槎錄』(영인본) 『濟州史資料叢書』(1), 제주도.

김상헌 저·홍기표 역주(2009), 『南槎錄』上·下, 제주문화원.

이원진(1991), 『耽羅志』,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이원진 저·김찬흡 외 옮김(2002), (譯註)『耽羅志』, 푸른역사.

이건 저·김익수 역주(2010), 『葵窓集』, 제주문화원.

이중 저·김익수 역(2001), 『南槎日錄』, 제주문화원.

김성구(1988), 『八吾先生文集』(영인본), 景仁文化社.

이익태 저·김익수 역(2010), 『知瀛錄』(증보판), 제주문화원.

남구명 저, 김영길 역(2010), 국역 『寓庵先生文集』, 제주교육박물관.

남만리, 장인식(1989), 『耽羅誌』(영인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이원조(1989), 『耽羅誌草本 外』(영인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이원조 저·고창석 역주(2007), 『耽羅誌草本』上(春·夏), 제주교육박물관.

김석익(1990), 『心齋集』(영인본), 제주문화.

### 2. 논문 및 저서

김태영(1973), 『朝鮮初期 祀典의 成立에 대하여』, 『歷史學報』 제58집, 역사학회.

한우근(1979), 『朝鮮王朝 初期에 있어서의 儒敎理念의 實踐과 信仰·宗教』, 『한국

사론』 제3집, 서울대 국사학과.

- 김봉옥(1991), 「尊者庵의 位置」 『濟州島史研究』 창간호, 濟州島史研究會.
- 김동전(1991), 「朝鮮時代 濟州島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濟州島史研究會』 창간호, 濟州島史研究會.
- 강창언(1992), 「濟州島의 佛跡」, 『耽羅文化』 제1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제주대학교 박물관·제주도(1993), 『尊者庵址』-發掘調査中間報告-
- 제주도(1995), 『尊者庵址』: 整備計劃 報告書.
- 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도(1996), 『尊者庵址』
- 국립문화재연구소(1996), 『韓國寺刹의 山神信仰研究』.
- 한우근(1997), 『유교정치와 불교』, 일조각.
- 김성우(1997), 「17세기의 위기와 숙종대 사회상」, 『역사와 현실』 제25호, 한국사연구회.
-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2000), 『水精寺址』.
- 김철웅(2001), 「고려시대의 山川祭」, 『한국중세사연구』 제11호, 한국중세사학회.
- 허홍식(2002), 「世宗時 山川壇廟의 分布와 祭儀의 變化」, 『청계사학』, 제16·17집, 淸溪史學會.
- 한형주(2002), 「조선 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 최종성(2002), 「조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구」, 일지사.
- 김혜영(2003), 「조선 초기 제사에전 연구」, 집문당.
- 최선혜(2003), 「조선전기 지방의 산천제와 재지품관」, 『민속학연구』 제13호, 국립민속박물관.
-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2004), 『제주 불교유적 조사보고서 - 제주의 폐사지』.
- 전영준(2005), 「高麗時代 寺院佛事와 助力者」, 『역사민속학』 제20호, 역사민속학회.
- 오상학(2006), 「조선시대 한라산의 인식과 그 표현」, 『국토지리학회지』 40권 1호, 국토지리학회.
- 고창석(2007), 「濟州道內 寺刹의 創建時期에 대한 管見」, 『濟州歷史研究』, 세림.
- 고창석(2007), 「존자암에 대한 관건」, 『耽羅國時代史』, 서귀포문화원.
- 김오진(2008),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상제해와 관민(官民)의 대응 양상」,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6호, 대한지리학회.

- 진영일(2008),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진영일(2010), 『고려국왕과 재이사상』, 제주대학교출판부.
- 아라동주민자치위원회(2010), 『한라산신제의 원형발굴과 복원을 위한 학술조사보고서』.
- 김아네스(2010), 「조선시대 산신 숭배와 지리산의 神祀」, 『역사학연구』 제39집, 호남사학회.
- 제주고고학연구소(2011), 『한라산 영실(靈室) 절터(寺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1), 『旌義縣 官衙址』.
- 현문필(2011), 「존자암의 創建에 관한 고찰」, 『濟州道研究』 35집, 제주학회.
- 한금순(2011), 「제주도 존자암 考」, 『大覺思想』 16집, 대각사상연구원.
- 제주고고학연구소(2012), 『한라산 영실 절터[제2 존자암 옛터]발굴과 보존, 활용 방안 학술심포지엄』 발표요지문.

Abstract

The consideration of a reason to place and move building  
Jonjaam(尊者庵) in Joseon dynasty

Song, Mun-Ki\*

This thesis consider the historical reason of move building Jonjaam (尊者庵), and close examination of where is Jonjaam(尊者庵) temple site in Joseon dynasty by historical authority(典據).

Jonjaam(尊者庵) have placed in Yeong sil(靈室), Bole ridge(浦涯嶽), Daejeong prefectural(大靜縣) in Halla mountain as a small Buddhist temple

The reason of move building to three place that is Sejong period policy of prohibition to counterfeit copper and altar improve in 15th Century. Another reason is measurers against disaster at the Jeju island, late in the 17th century. measurers against disaster is pushed ahead of two Direc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by the people's dearest wish and policy of a government office to counterfeit copper.

As a result, government Policy to counterfeit copper was accomplished by bulding s hallamountain-god shrine in early 18th century which means decline of Buddhism and breake down of Jonjaam(尊者庵). But the important reason of Jonjaam(尊者庵) have placed to three site as a people's desire in Daejeong prefectural(大靜縣) and jeongui(旌義縣).

---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History, Je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Jonjaam(尊者庵), Yeong sil(靈室), shirine of hallamountain god , religious service of hallamountain god

교신 : 송문기 697-85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1443-3  
(E-mail : hyangz@hanmail.net.)  
전화 : 010-5593-7854

논문투고일 2012. 06. 15.  
심사완료일 2012. 07. 25.  
게재확정일 2012. 08. 14.